

# 러시아연구소 — 40년史



**1972-2012**

The 40-Year History of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История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40 лет

# 러시아연구소 — 40년 史

**1972-2012**

The 40-Year History of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История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40 лет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 o n t e n t

04 발간사  
06 축사

14 개관  
20 현황



제1부 연구소 개관 및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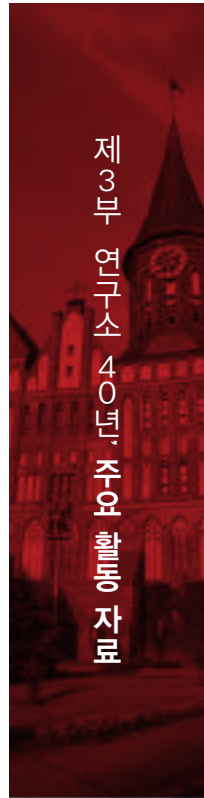
34 약사(略史)  
53 역대 소장의 회고  
64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



제2부 러시아연구소 40년

2

70 학술활동  
71 콜로키움  
80 국내학술회의  
84 국제학술회의  
90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  
101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108 출판활동  
110 슬라브研究  
129 러시아 지역연구  
131 月刊 카프카즈 저널  
135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  
139 Ukraine & Belarus  
143 Russia·CIS Focus  
152 Russia & Russian Federation  
159 단행본/총서  
161 교류협력활동  
162 연구·교육기관  
164 일반기관



제3부 연구소 40년 주요 활동 자료

3

172 연구목적 및 범위  
174 연구 아젠다 및 대상  
179 연구 수행 계획 및 내용  
182 추진 사업



제4부 연구목적(목적)·범위  
러시아연방·인접국간의 학문적 재구성

4

제5부 역대 연구진 및 근무자 명단



5

## 러시아연구소 40년사를 발간하며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72년 1월 13일, 국내 최초의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 전문 연구기관으로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가 한국외대에 설립되었습니다. 냉전의 유행이 거칠게 배회하던 시절, 높은 이데올로기 장벽 때문에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는 커다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칠흑의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선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초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연구소의 명칭과 연구의 공간적 영역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1993년 3월,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연구소의 명패를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에서 ‘러시아연구소’로 새롭게 개명하였습니다. 연구대상 지역도 탈소비에트 공간, 즉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연구소는 한국의 국익 증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차별화되고 심층적인 러시아·CIS 지역연구를 모색해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대결이 한반도에 질게 투영된 냉전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소는 러시아 및 CIS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한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수행해왔고, 동시에 학술적 담론의 생산과 국가정책에 공헌하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 성과들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예컨대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일련의 정책보고서, 러시아·CIS 지역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심화에 기여하는 각종 연구총서 및 단행본, 국내 최고 권위 학술지로 자리매김한 ‘슬라브研究’,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와 공유하는 콜로키움, 동학제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문가 초청 특강, 특정 이슈의 분석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기업체대상 지역전문가 교육, 지식과 학문의 사회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계간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 주간 온라인 시사칼럼 ‘Russia·CIS Focus’ 등은 국내 러시아·CIS 지역연구의 ‘메카’로서 오늘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위상과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적 위상과 역량은 우리 연구소가 지난 2009년 11월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사업 해외지역연구분야 연구소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10년간 도합 87억원의 연구비를 수혜하는 HK 연구사업을 계기로 현재 러시아

연구소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도정에서 러시아연구소가 2012년 1월 13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40년을 차분히 반추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새롭고 희망찬 40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국의 러시아·CIS 지역연구를 선도해온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21세기 글로벌 러시아·CIS 전문연구소로 발돋움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0년의 궤적을 정리한 ‘러시아연구소 40년사’의 발간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불혹(不惑)의 성상(星霜)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 요약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목차를 만들어 분류해야 했고, 일부 유실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연구진 및 근무자들의 인터뷰도 필요했습니다. 연구소 서고에 가득한 묵은 먼지를 모두 털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의 편린들을 퍼즐처럼 맞춘 다음에야 비로소 한권의 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소 HK 연구교수 제성훈 박사의 헌신과 열정이 없었으면 ‘러시아연구소 40년사’의 발간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편찬에 필요한 여러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역대 연구소장님들과 연구진 그리고 근무자분들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러시아연구소 지난 40년의 진화과정을 나름대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역량과 역사성을 공고히 하는 본 40년사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러시아연구소 40년사의 발간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의 자기표현입니다. 향후 러시아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비전은 담대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탈 소비에트 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을 모색하고, 지리적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자 하며, 한국의 대외적 국익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위상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오니 동학제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질정(叱正) 부탁드립니다.

## 러시아연구소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1954년 국내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반세기 이상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진리, 평화, 창조’라는 건학이념에 기초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본교의 학풍과 지구촌 곳곳을 누비던 졸업생들의 활약은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과 저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전 구성원들은 본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약을 향한 도정에서 2012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바로 본교의 13개 지역 연구소들 중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내 최고의 러시아·CIS 지역 연구소인 러시아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1972년 냉전의 엄혹한 국제정세에서 본교는 국내 최초의 소련 및 공산권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현 ‘러시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40년간 탈냉전, 소련 해체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구소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러시아연구소는 연구 성과의 양과 질, 연구진의 역량, 학술협력 네트워크 규모 등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러시아·CIS 지역 연구소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라는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러시아연구소의 오늘을 만들어 오신 전임 연구소장님들과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40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러시아연구소 40년사’의 편찬과 발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완석 소장과 현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총장으로서 러시아연구소의 무한한 발전과 도약을 항상 성원하겠습니다.

##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창립 40주년과 ‘러시아연구소 4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오랜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무한한 협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1년에는 양국간 교역액이 2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스크바 중심부에 한국의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는 연간 15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농업, 조선, 에너지, 건설 등 많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1990년 수교 직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회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주, 항공,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협력 파트너일 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웃국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러한 러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구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언을 통해 국내 러시아 연구의 중추로서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방향 설정과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연구소가 더 한층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혀나감은 물론 건설적인 정책적 제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엔 발간되는 ‘러시아연구소 40년사’가 한·러 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한·러 관계 발전을 바라는 홍완석 소장님과 모든 연구원들의 꿈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K. V.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러·한관계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과 연구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원들의 커다란 노력과 헌신적 노고 덕분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와 한국 연구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을 위한 권위 있는 ‘장(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고 러·한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찾는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Russia & Russian Federation’의 정기적 발간 등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연구소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공부하는 한국의 다른 대학 학생들의 지적 열망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연구소가 러·한 학술 및 교육의 ‘장(場)’에서 원대한 과제와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계속 형성할 것이고, 우리 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연구소의 활동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지식인들을 통합하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진 재능 있는 학생들과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러·한 우호 및 동반자관계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러시아연구소의 뜻 깊은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홍완석 소장과 모든 소속 연구원의 건강과 연구 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От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вас с 40-летним юбилеем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кук.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бы выразить Университету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кук,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г-ну Хонг Ван Соку и сотрудникам Центра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важный вклад в дело укреплени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Благодаря большим усилиям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му труду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Центр стал авторитет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и дискуссий между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еследующими благородные цели сохранения богатого духов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для поиска новых интересных идей и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иданию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аче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лодотвор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оведение на базе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и семинаров с участием экспертов практически со всех континентов, и регулярное издание журнала «Россия 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росту интереса к России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о и за рубежом.

Считаю особенно важным то, что Центр предоставляет хоро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получи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ведения о нашей стране, поддерживает стремление студентов не тольк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кук, но 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 изучению России.

Уверен, что Центр продолжит формировать н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оле» общее понимание масштабных задач и целей, над достижением которых наши страны будут трудиться на благо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Не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фундамента дружбы и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ъединяя интеллектуалов с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и открывая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конструктивно мыслящим талантливым студентам и ученым-русистам.

Еще раз поздравляю Центр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ой и желаю руководству и всем его сотрудникам здоровья и новых успехов в ваше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самыми наилучшими пожеланиями,

**К. В. Внуков**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I. I. 샵비디 (러시아연방 하원의원, 국제관계위원회)

존경하는 홍완석 교수님!

존경하는 러시아연구소 연구진 여러분!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러시아연구소는 지난 40년 간 수많은 장애와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토록 뜻 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모든 난관들이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연구소는 험난한 길, 즉 영토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외교관계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먼 나라였던 러시아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러시아 전문가들과도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한국에서 가장 큰 러시아 연구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러시아연구소는 지속적인 성장과 활동영역 확대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러시아연구소 40년사’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연구소는 활동영역을 학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양국 간 교류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러·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연구소, 즉 책임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실현하고 그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어가는 연구센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러시아연구소가 모든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더 나아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러시아 연구센터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러·한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профессор Хонг Ван Сок, уважаемые сотрудники Института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Я очень рад возможности поздравить Ваш Институт с юбилейной датой – 40 лет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За эти годы Вами был проделан долгий путь, на котором встречалось немало крутых поворотов и препятствий, но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в эти дни отмечается столь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все они были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ны.

Институт выбрал очень трудную стезю –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при кажущейс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близости долгое время была далекой страной в виду отсутств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ел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изучению различных сторон жизни СССР и сотрудничал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Росси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мог накопить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и знания, позволившие ему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крупнейший в Корею научны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России.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90 г. открыло Институту огром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и расширения пол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он смог умел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это наглядно представлено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посвященном истории Института. Уникальность центр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он не ограничился только научной сферой, 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обмене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 том чи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наличие подоб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которые с полной отдачей и энтузиазмом мог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способных взять на себя такую ответ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Я желаю Институту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его проектах, желаю, чтобы о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ставленными целями превратился в крупный мирово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России,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окажет благотворное влияние и на характер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С самыми теплыми пожеланиями успехов,

**Иван Саввиди**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лен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Член депутатской группы по связям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40 Year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 연구소 개관 및 현황

### 01 개관

- 설립배경 및 목적
- 설립근거
- 주요활동
- 상징
- 연혁

### 02 현황

- 일반 현황
- 조직 및 구성
- 연구소장
- 상근연구인력 현황
- 초빙연구원 현황
- 사무인력 현황
- 연구보조인력 현황
- 운영위원회 현황
- 학술지 편집위원회 현황
- 연구위원회 현황
- HK 일반연구원 현황
- 전임교원 현황
- 공간 현황

## 01 설립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초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1972년 1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자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는 1993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로 한정하고 그 명칭을 '러시아연구소'로 변경하였다.

## 02 설립근거

본 연구소는 1972년 1월 학칙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1993년 3월 학칙 개정과 함께 명칭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1999년 학칙 개정에 따라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소속의 부속기관이 되었다. 2005년 12월 학칙 개정에 의해 현재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의 부속기관이다.

## 03 주요활동

1. 연구활동: 러시아 및 CIS 국가들에 대한 선도적 지역연구 수행
2. 학술행사 개최: 콜로키움(매월),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전문가 초청특강(학기 중),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등
3. 연구 성과물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슬라브研究'(연 4회), Russia·CIS Focus(매주), Russia & Russian Federation(연 4회) 등 정기간행물과 각종 단행본/총서 발간
4. 교류협력활동: 국내외 연구·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기업체 등 일반기관들과 협정체결 및 교류협력 활동
5.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6. 기타: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러시아어 서머스쿨 등

## 04 상징

본 연구소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의 방패는 세계 최고의 러시아·CIS지역 연구소를 지향하는 본 연구소의 굳센 의지를 의미한다. 방패 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상징과 본 연구소의 영문약자가 표시되어 있다. 쌍두독수리는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본 연구소의 웅대한 포부와 함께, 주된 연구대상인 러시아를 의미한다. 방패의 네 모서리는 보다 확장된 연구대상으로서 러시아와 인접한 동아시아, 유럽,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지역을 각각 상징한다.

# 연혁

## 1970



1972. 01. 13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설립, 초대 연구소장에 동완 교수 취임

1972. 07

국토통일원 국책연구사업 참여

1973. 08

모스크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동완 소장이 한국 대표단 섭외부장으로 참가

1975. 09. 01

제2대 소장에 김학수 교수 취임

1978. 03. 01

제3대 소장에 조규화 교수 취임

1978. 03

문교부 지원 1차 공산권 연구 5개년 프로젝트 참여(소련 연구)

1979. 10. 25

기무라 히로시 교수(홋카이도대 소련문제연구소)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최근의 소련정치와 그 전망: 브레즈네프와 그 이후' 개최

## 1980



1987. 05. 07

한국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학술세미나 '소련·동구의 경제환경과 진출방안' 개최

1980. 06. 10

제4대 소장에 강흥주 교수 취임

1983. 12. 16

제5대 소장에 이종진 교수 취임

1985. 02. 07

제6대 소장에 조규화 교수 취임

1985. 03

문교부 지원 2차 공산권 연구 5개년 프로젝트 참여

198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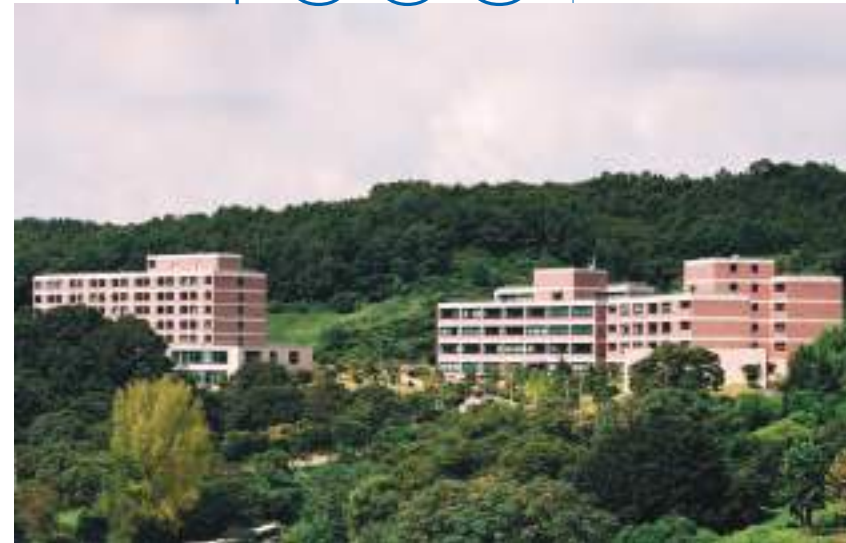
G. VV. 브레슬라우어 교수 (버클리대)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고르바초프 체제의 성격과 장래' 개최

1986. 08. 26

제7대 소장에 기연수 교수 취임

## 1990



1999. 05

공간 확대를 위해 용인캠퍼스 (현 글로벌캠퍼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현 국제사회교육원)로 연구소 이전

1991. 03. 04

제8대 소장에 이철 교수 취임

1993. 03. 02

'러시아연구소'로 명칭 변경

1993. 08. 01

제9대 소장에 이종진 교수 취임

1994. 03. 01

제10대 소장에 강흥주 교수 취임

1994. 09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 중점연구소 선정 '러시아정교회 연구' 과제수행

1995. 08. 01

제11대 소장에 이철 교수 취임

1997. 08

학술지 '러시아 지역연구' 창간

1997. 09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과제 선정 '러시아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과제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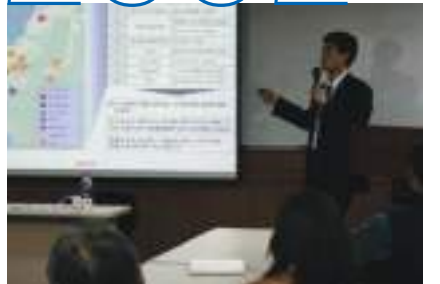
1998. 09. 01

제12대 소장에 강흥주 교수 취임

1998. 09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과제연구 선정 '러시아와 CIS에서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연구' 과제수행

## 2000~2002



2000. 03

1차 정기 총회 개최

2000. 03. 01

제13대 소장에 기연수 교수 취임

2000. 06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연수'(1기) 수행

2000. 12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육성 지원과제 선정 '러시아 민간신앙 연구' 과제수행

2001. 06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연수'(2기) 수행

2001. 09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육성 지원과제 선정 '러시아어 음운현상의 통시성과 공시성 연구' 과제수행

2001. 12

학술지 '슬라브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2. 06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연수'(3기) 수행

2002. 12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선정 '21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재조명: 러시아의 세계화와 지리·공간적 권력이동을 중심으로' 과제수행

# 2003~2009



**2004. 12. 30**  
학술지 '슬라브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2003. 06  
재외동포재단과 공동으로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연수'(4기) 수행

2003. 09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인문사회분야  
선정 '21C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이슬람:  
카프카즈 이슬람 세력과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과제수행

2003. 12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지원과제 선정  
'20세기 러시아 환상문학의 시학: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체제 뒤집기' 과제수행

2004. 01  
국내 러시아·CIS지역 연구기관 최초의  
e-journal '月刊 카프카즈 저널' 창간

2005. 09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인문사회분야  
선정 '新냉전 헤게모니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흑해-카스피해- 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수행

2005. 10  
e-journal  
'月刊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연구' 창간

2007. 08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인문사회분야  
선정 '동'과 '서' 사이에서: 슬라브 형제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과제수행



**2009. 11**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사업  
해외지역연구분야 연구소 선정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2008. 02. 01  
제14대 소장에 장실 교수 취임  
2008. 02  
e-journal 'Ukraine & Belarus' 창간

2008. 08  
지식경제부 정책과제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보 구축'

2008. 11  
한국국제교류재단 위탁사업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1기) 수행

2009. 02. 01  
제15대 소장에 홍원석 교수 취임

2009. 03  
온라인 저널 'Russia · CIS Focus' 창간

2009. 07  
문화관광부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수행

2009. 08  
한국국제교류재단 위탁사업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2기) 수행

# 2010



**2010. 10. 07**  
16차 국제학술회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개최

2010. 02  
HK 학술연구총서 1권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이해' 발간

2010. 03  
계간 러시아 지역정보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 창간

2010. 07  
HK 학술연구총서 2권 '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발간

2010. 08  
한국국제교류재단 위탁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3기) 수행

2010. 11. 12  
33차 국내학술회의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개최

# 2011~2012



**2012. 01. 01**  
영문국제학술지 'REGION' 창간

2011. 01  
연례보고서 '2010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발간

2012. 01. 13  
러시아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식(17:30-  
20:30, 인터콘티넨탈호텔)

2011. 05. 20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

2011. 06-07  
러시아어 서머스쿨 진행

2011. 08  
한국국제교류재단 위탁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4기) 수행

2011. 0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력 지수 평가에서 전국  
대학 러시아·CIS 연구기관들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 내에 진입(16위)

2011. 12. 15-16  
20차 국제학술회의 '포스트 소비에트 20년과  
현대 러시아의 정치공간: 이데올로기, 국가체제,  
그리고 세계전략(20 Years On-Post-Soviet  
Russian Politics: Ideologies, State  
Systems, and World Strategies)'



# 연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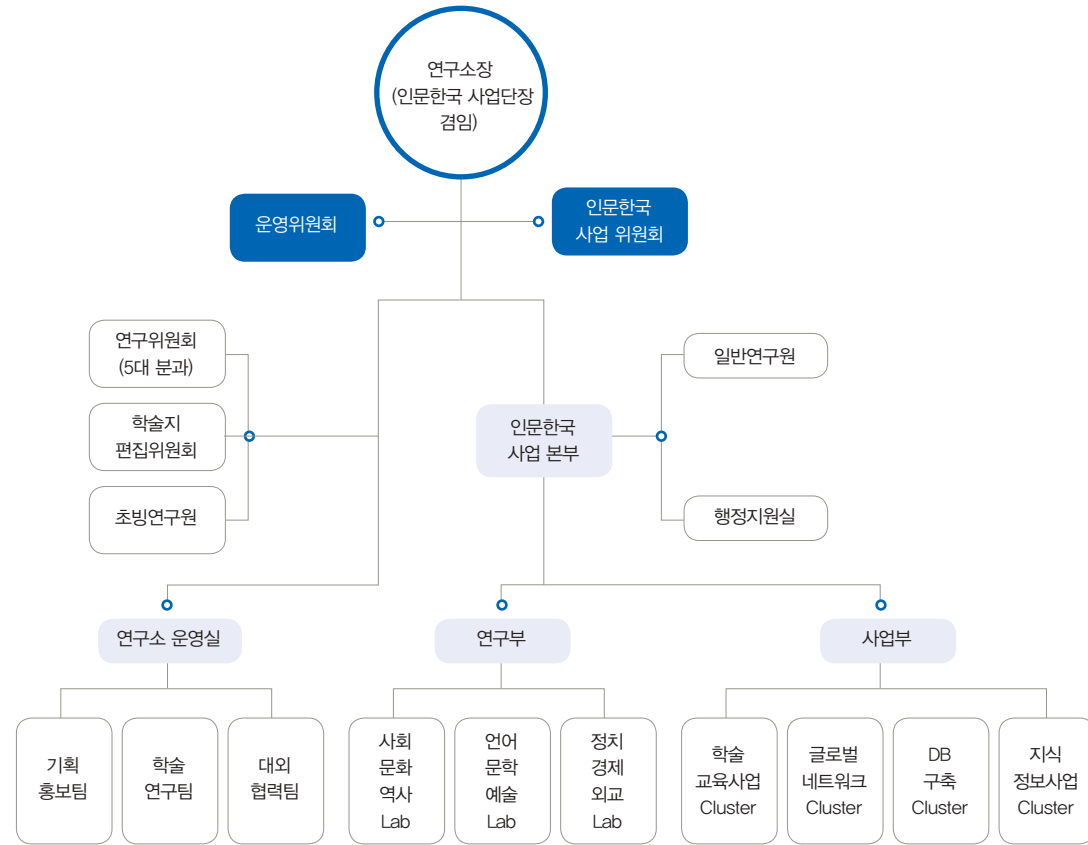
1부 연구소 개관 현황



## 01 일반 현황

공식명칭	(국문) 러시아연구소 (영문)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노문)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설립일자	1972년 1월 13일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07, 408, 409, 411, 412호  (서울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908호
대표전화	031-330-4852, 031-330-4851 (Fax) (서울사무소) 02-2173-2556
홈페이지	(연구소) <a href="http://www.rus.or.kr">www.rus.or.kr</a> (HK 사업단) <a href="http://hk.rus.or.kr">hk.rus.or.kr</a>
이 메 일	(연구소) <a href="mailto:hufsirs@hufs.ac.kr">hufsirs@hufs.ac.kr</a> (HK 사업단) <a href="mailto:hkirs@hufs.ac.kr">hkirs@hufs.ac.kr</a>

02 조직 및 구성



03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대내적으로 연구소 운영을 책임지고,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서 학술지 발간을 총괄한다. 또한, 인문한국(HK) 사업단장으로서 연구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2012년 1월 현재 연구소장은 홍완석 교수이다.

04 상근 연구인력 현황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책임연구원, HK 교수 4명, HK 연구교수 7명 등 총 13명의 상근 연구인력을 두고 있다. 상근 연구인력은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개인연구, 주관업무 및 협력업무를 통해 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한다.

연구소장	홍완석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박사
책임연구원	김준석	러시아 문학연구소(Pushkinskii Dom) 문학박사
HK 교수	김민수	러시아 치타 국립 대학교 철학박사
	송준서	미시간 주립 대학교 역사학박사
	정하경	하버드대학교 언어학박사
	황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박사

HK 연구교수	김선래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정치학박사
	김혜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역사학박사
	라승도	텍사스 주립 대학교 문학박사
	장세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정치학박사
	제성훈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정치학박사
	최우익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사회학박사
	Irina A. Korgun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경제학박사



1  
2

1 HK 연구사업단 현판식 (2010. 12. 08)  
2 HK 연구사업단(연구소장, HK 교수, HK 연구교수)



### 05 초빙연구원 현황

본 연구소는 역량 있는 외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20명 내외의 초빙연구원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초빙연구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초빙연구원	김용환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역사학박사
	문준일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문학박사
	박미령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박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박정호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박사
	변군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박사
	손현익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언어학박사
	송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박사
	양창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박사
	어건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박사
	이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박사
	이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이희원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문학박사
	장 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장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정옥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박사
	조준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최아영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역사학박사

### 06 사무인력 현황

본 연구소는 원활한 사무행정을 위해 전담사무직원, 청년인턴 등 2명의 사무인력을 두고 있다.

사무인력	전민근	전담사무직원
	백은지	청년인턴

### 07 연구보조인력 현황

본 연구소는 상근 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조교 2명, HK 연구조교 13명 등 총 15명의 연구보조인력을 두고 있다.

연구소 소속 연구조교	김가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
	유숙희	한국외대 노어과

HK 연구조교	안유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송다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
	김유정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
	박기덕	한국외대 노어과
	안연주	한국외대 노어과
	노일영	한국외대 노어과
	안명운	한국외대 노어과
	박현진	한국외대 경제학과
	이창길	한국외대 노어과
	강민선	한국외대 노어과
	김효순	한국외대 노어과
	김애리	한국외대 노어과
	이득영	한국외대 노어과



1 2

1 행정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조교들  
2 연구조교들(2011. 07. 12)

08 운영위원회 현황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주요 활동방향 및 사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운영위원은 총 6명으로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권위 있는 연구자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운영위원	강덕수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석우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9 학술지 편집위원회 현황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슬라브研究’의 편집 및 발간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편집위원회는 국내 9명, 해외 10명, 총 19명의 편집위원과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어학, 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한국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어온 저명한 연구자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편집위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어학)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문학)
	윤새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문학)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경제학)
	이은순	단국대학교 교수(어학)
	이채문	경북대학교 교수(사회학)
	홍상우	경상대학교 교수(문학)
	홍택규	한림대학교 교수(어학)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정치학)
	Evgenii Avdokushin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교수(경제학)
	Vsevolod Bagno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문학연구소 교수(문학)
	Aleksei Dryomov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언어학)
	Guihai Guan	베이징대학교 교수(정치학)
	Sergei Kurbanov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교수(한국학)
	Pavel Leshakov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교수(경제학)
	Igor Miloslavskii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교수(언어학)
	Aleksandr Nikitin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교수(정치학)
	Peter Rutland	웨슬리안대학교 교수(정치학)

	Aleksandr Stepanov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교수(문학)
편집위원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문학)

10 연구위원회 현황

연구위원회는 상근 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선도적 지역연구를 주도한다. 5개 분야에 걸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2년 1월 현재 총 26명이다.

정치분야	김석환	주성대 부총장
	배수한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홍섭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경제분야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학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이종문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원호	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사회·문화분야	홍성원	영산대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김우승	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김형주	러시아 경제문화연구원 원장
	박태성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
	홍석우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어학분야	강덕수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방교영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교수
	추석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표상용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문학분야	한만춘	상명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권철근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김성일	청주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김현택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이덕형	성균관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함영준	단국대 러시아어과 교수
홍상우	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11 HK 일반연구원 현황

HK 일반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HK 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HK 사업의 수행에 참여한다. 3개 분과에 걸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2년 1월 현재 총 17명이다

1분과 (사회·문화·역사)	김근식	문 학	중앙대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 전공 교수
	이재문	사회학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정숙	역사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홍석우	민속학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2분과 (언어·문학·예술)	강덕수	어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권철근	문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김수환	문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김준석	문 학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현택	문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방교영	어 학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추석훈	어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3분과 (정치·경제·외교)	표상용	어 학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윤익중	정치학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종문	경제학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
	이홍섭	정치학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원호	경제학	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홍완석	정치학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본교 관련학과 전임교원들(2009)

12 전임교원 현황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연구소 주요 활동에 있어서 학부 노어과(서울/글로벌),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 교육대학원 러시아어교육학과 소속 전임교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본교 관련학과의 전임교원은 내국인 9명, 외국인 5명, 총 14명이다.

권철근	미국 캔자스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강덕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언어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김현택	미국 캔자스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표상용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언어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홍완석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추석훈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언어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홍석우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민속학박사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김수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문학연구소(Pushkinskii Dom) 문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Aleksei Dryomov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 언어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Tamara Kaplan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철학박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Lyubov Podgornaya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철학박사	한국외대 노어과
Maria Solovyova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언어학박사과정 수료	한국외대 노어과
Nadezhda Toloraya	모스크바 국립 사범대학교 교육학석사	한국외대 노어과

### 13 공간 현황

본 연구소는 한국의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과 서울캠퍼스 본관에 다음과 같은 연구공간을 두고 있다.

서울캠퍼스 본관	서울사무소(908호)	46.8㎡	5명 수용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행정실(412호)	97.3㎡	11명 수용
	HK 연구교수 연구실(408호)	64.6㎡	6명 수용
	HK 교수 연구실(409호)	64.6㎡	4명 수용
	자료실(407호)	37.6㎡	-
	회의실 & 도서실(411호)	61.0㎡	-
총 계		371.9㎡	-



연구소 전경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40 Year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

## 러시아연구소 40년

### 01 약사(略史)

- 태동기(1972-1981)
- 성장기(1982-1992)
- 전환기(1993-2008)
- 도약기(2009-현재)

### 02 역대 소장의 회고

- 조규화 전임 소장
- 강홍주 전임 소장
- 이종진 전임 소장
- 기연수 전임 소장
- 장 실 전임 소장

### 03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



# 약사(略史)

2부 러시아연구소 40년



## 1단계: 태동기(1972-1981)

연구기반을 구축하다.

1970년대 초 냉전의 완화와 남북관계의 일시적 개선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는 당시 국내 유일의 러시아(소련) 관련 학과였던 본교 노어과를 기반으로 1972년 1월 13일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를 설립했다. 당시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추이는 공산권 제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학술적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본 대학은 1972년 1월 우리나라의 대 소련 및 동구 제국 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반 사정을 조사 연구하는 부설기관을 발족시킨 것이다.” 동완 교수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본교 노어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의 소련 및 동구권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설립된 지 불과 6개월 만인 1972년 7월 본 연구소는 국토통일원의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3년 8월에는 연구소장 동완 교수가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단 섭외부장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1975년 9월 동완 교수의 후임으로 김학수 교수가 연구소장에 취임했다. 이때 정부는 6.23 선언 이후 공산권 연구 필요성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이에 1977년 4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여 공산권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되고, 1978년부터 1982년

까지 공산권 연구 5개년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유로코뮤니즘 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중국 연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는 동구권 연구, 그리고 본 연구소는 소련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8년 3월 김학수 교수의 후임으로 소장에 취임하여 공산권 연구 5개년 프로젝트를 주도한 조규화 교수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학내외 저명한 소련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상근간사에 김수희(현 조선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 연구소는 1978년부터 1982년 3월까지 총 9권의 연구총서와 3권의 소련총람을 발간했다. 연구총서 1권 '소련의 제정체 변화에 관한 연구'(1980. 3), 2권 '소련정치과정(I)'(1980. 3), 3권 '소련사회주의 경제의 변천과정'(1980. 3), 4권 '소련신문에 반영된 한국'(1980. 3), 5권 '소련정치과정(II)'(1981. 3), 6권 '소련의 산업'(1981. 3), 7권 '노동신문에 반영된 소련'(1981. 3), 8권 '맑시즘과 불세비즘 비교연구'(1982. 3), 9권 '대소 접근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1982. 3)가 순차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총람 시리즈 '소련총람 I'(1980. 2), '소련총람 II'(1981. 3), '소련총람 III'(1982. 3)도 매년 발간했다. 연구총서 및 총람의 필진으로는 김계수, 김덕, 안병만, 조규화, 서재명, 전응렬, 노명준, 한홍순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브레즈네프 집권 말기였던 1979년 10월 25일에는 홋카이도 대학 소련문제연구소의 키무라 히로시(Hiroshi Kimura)를 초청하여 '최근 소련 정치와 그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1980년에 접어들자, 연구소는 정부와 학교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 국내 최고의 지역전문가들과 3000여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소련 및 동구연구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



1970년대 문서작성에 쓰였던 타자기



소련 및 공산권 정기간행물철



당시 발간된 연구총서와 소련총람

국제학술세미나(1979. 10)  
- 최근 소련정치와 그 전망:  
브레즈네프와 그 이후

### 2단계: 성장기(1982-1992) 연구역량을 강화하다.

정부의 공산권 연구 5개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1982년 9월 본교 연구소협의회와 외교안보연구원의 지원으로 본 연구소 최초의 학술지인 '슬라브研究'가 창간되었다.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슬라브研究'는 현재 한국의 슬라브학 및 러시아·CIS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 연구소장 강홍주 교수는 창간사를 통해 "‘슬라브研究’는 소련 및 동구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이철, 김학수, 이종진, 장실, 강홍주, 김경욱 교수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종진 소장 재임기인 1984년부터는 다시 연구총서 발간에 집중하였다. 연구총서 10권 '현대 소련의 연구'(1984. 7), 11권 '한국에 대한 소련의 관심도 연구'(1985. 6), 12권 '80년대에 있어서 매스컴 및 학술잡지에 나타난 소련의 대한시각'(1986. 6) 등이 발간되었다. 필진으로는 손봉호, 장실, 안병만, 김수희, 김덕, 기연수, 김경욱, 동완, 노명준, 이철, 김학수, 이종진, 강홍주, 한홍순, 전용렬, 서재명, 조규화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1985년 10월에는 연수원 강당에서 '고르바초프 체제의 성격과 장래'라는 주제로 브레슬라우어(G. W. Breslauer) 버클리대 교수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국제학술세미나는 국제학술회의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기연수 소장 재임 시절인 1987년 5월에는 전경련 회관에서 '소련·동구의 경제환경과 진출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소련, 동구의 최근 경제동향', '소련, 동구의 최근 대외무역동향', '한국기업의 대 소련, 동구진출방안'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학술세미

1 2

1 전경련과 공동주최한 '소련·동구의 경제환경과 진출방안' 세미나(1987. 05. 07)  
2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87. 10) - Jeno Hamori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81. 10) - Herbert S. Levine, Daniel L. Bond

나는 국내학술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페레스트로이카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소련 지식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에 본 연구소는 소련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학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잘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했다.

대표적으로 1991년 10월에는 스테파노프(A. Stepanov)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총장을 초청하여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강대국 90년대 소련의 국내 및 외교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스코펜코(V. V. Skopenko) 키예프 국립대 총장과 자비가일로(V. K. Zabigailo) 교수를 초청하여 '우크라이나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정치, 경제적 전망'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 1 2
- 3

1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1991. 10. 29) - A. Stepanov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총장)  
 2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1988. 8. 23) - Wallace (글래스고우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소장)  
 3 국제학술세미나(1989. 11. 07) - 최근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변화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87. 09. 02) - Joan D. Grossman(버클리대 교수)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91. 12. 10) - V. V. Skopenko(키예프 국립대 총장)

라는 주제로 해외지역연구과제를, 1998년 9월부터는 '러시아와 CIS에서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연구'라는 주제로 우수과제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00년 12월 인문학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러시아 민간신앙 연구'는 기독교국가로서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온 러시아 종교의 원형성을 고찰함으로써 러시아정교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해명하고, 현대 러시아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어서 2001년 9월에는 '러시아어 음운현상의 통시성과 공시성 연구'라는 주제로 인문학 육성 지원 사업에 재차 선정되었다.

2002년 12월 기초학문과제에 선정된 '21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재조명: 러시아의 세계화와 지리, 공간적 권력 이동을 중심으로'는 러시아의 '도시공간'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러시아 지역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3년 9월 기초학문과제에 선정되어 2년간 수행된 '21세기 러시아의 국가 전략과 이슬람: 카프카즈 이슬람세력과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는 러시아 국가정체성 확립 및 사회



1  
2 3

- 1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1995. 11. 27) - Georgii F. Kynadze(주한 러시아 대사)
- 2 1999년 글로벌캠퍼스 외국학종합연구센터로 이전한 러시아연구소(행정실, 연구실)
- 3 1999년 글로벌캠퍼스 외국학종합연구센터로 이전한 러시아연구소(자료실)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95. 10. 20) - Valentin Rasputin(작가)

### 3단계: 전환기(1993-2008) 새로운 연구기반을 모색하다.

이철 소장 재임 시절인 1993년 3월 본 연구소는 소련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상을 특화시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사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소 명칭을 '러시아연구소'로 변경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이 되자 늘어나는 장서와 자료들로 인해 당시 서울캠퍼스 본관 2층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본교가 용인캠퍼스(현 글로벌캠퍼스)에 외국학종합연구센터(현 국제사회교육원)를 개관하고 부설 연구소들의 이전을 독려함에 따라, 1999년 5월 연구소를 현재의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1994년부터 본 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한국의 러시아, CIS 지역연구를 선도해왔다. 1994년 9월 대학 부설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3년간 '러시아정교회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1997년 9월부터는 '러시아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그 밖에도 1997년 8월에는 학술지 '러시아 지역연구'를 창간했으며, 2004년 1월에는 국내 러시아·CIS지역 연구기관 최초의 e-journal인 '月刊 카프카즈 저널'을 발간하였다. 이어서 2005년 10월에는 '月刊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연구', 2008년 2월에는 'Ukraine & Belarus' 등 e-journal을 계속 발간하여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2000년 초 내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정기 콜로키움이 기획되었다. 2000년 3월 김현택 교수와 정옥경 박사가 '러시아학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1차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 본 연구소는 교육 및 정보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2000-2003년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으로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연수'를 매년 수행했으며, 2008년 8-12월에는 지식경제부의 정책과제 수행차원에서 '2008년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보 구축'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매년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러시아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교육 및 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한국학 교육을 하는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도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학술회의(2009. 06. 20)  
- 동과 서 사이에서 벨라루시의 국가발전 전략



학술지 '슬라브研究'  
(1982. 09 창간, 2004. 12 학진 등재지 선정)



2000년대 주요 학술회의 프로시딩

통합에 있어 중요한 주제인 러시아 이슬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학계의 큰 반향을 얻었다. 2003년 12월부터는 '20세기 러시아 환상문학의 시학: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체제 뒤집기'라는 주제로 협동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신냉전 헤게모니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초학문과제에 선정되었다.

이어서 2007년 8월 기초학문과제에 선정된 '동과 서 사이에서: 슬라브 형제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은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국가정체성 및 발전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소의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또한, 2004년 12월 30일에는 학술지 '슬라브研究'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되어 명실 공히 한국의 슬라브학 및 러시아·CIS 연구의 선도적 학술지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했다.



연구소 벽 서가에 뿔뿔이 꽂힌 장서들



학술지 '러시아 지역연구'(1997.08 창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2001. 11. 16)



2009년 주요 발간물들

4단계 : 도약기(2009-현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2009년 2월 장실 교수의 뒤를 이어 소장에 취임한 홍완석 교수는 본 연구소의 축적된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러시아·CIS 연구소로서의 역량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위상을 또한 정립하겠다는 야심찬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온라인저널 'Russia · CIS Focus' (2009.03 창간)

먼저, 학문의 사회적 기여의 차원에서 2009년 3월 주간 온라인 저널인 'Russia · CIS Focus'를 창간했다. 홍완석 소장은 창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제 러시아연구소는 사회적 수요를 찾아 학술적 담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주 1회씩 시의적 주제를 찾아 'Russia · CIS Focus'라는 on-line 담론을 생산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탈소비에트 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을 모색하고, 지리적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자 하며, 한국의 국익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간 러시아 지역정보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 (2010.03 창간)



- 1
- 2
- 3

- 1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2010. 08)
- 2 HK 연구사업단 현판식 (2010. 12. 08)
- 3 국제학술회의(2010. 10. 07)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의 이해 I' 발간에 이어, 7월에는 2권 '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가 발간되었다. 학술지 '슬라브 研究'는 2009년과 2010년 디자인과 판형을 혁신하고, 2011년부터는 기존의 연 2회에서 연 4회로 발간회수를 늘였으며,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계간 러시아 지역정보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을 창간하였으며, 2011년 1월에는 한 해 러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결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연례보고서 '2010 Russia Report'를 발간했다.

또한, 2011년 4월 1일에는 한·러 지방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5월 20일에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31개 팀(6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7월에는 국내 최초로 '러시아어 서머스쿨'을 열었다.



2010-11년 주요 발간물들

- 1 2
- 3

1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2011. 04. 01)  
 2 1차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2011. 05. 20)  
 3 러시아어 서머스쿨 (2011. 06. 19-07. 02)



- 1
- 2

1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2010. 11. 24)  
 2 2010-11년 주요 발간물들

그동안 본 연구소가 수행해왔던 교육 및 정보 사업도 강화되었다. 2009년 8월과 2010년 8월 국제교류재단의 의뢰로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을 수행했으며, 2009년 7-11월에는 문화관광부 정책과제로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도 수행했다. 사업 수행 이후에는 단순한 결산 및 보고의 목적이 아니라 자료 축적과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매년 충실한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 11월부터 본 연구소는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사업(10년 과제)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과 본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본 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HK 연구사업단의 출범으로 연구소는 기존 인력에 더하여 HK 교수 4명, HK 연구교수 7명, 일반연구원 15명, 10여 명의 연구조교 등 연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층과 서울캠퍼스 본관 9층에 추가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0년 10월 7일 본교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국제학술회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양국관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와 한국의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과제들이 도출되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 최초로 학술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자료를 책자와 e-book으로 제작, 배포하여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반향을 얻었다.

연구성과의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HK 학술연구총서 1권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 역대 소장의 회고

2부 러시아연구소 40년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1년 9월 본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력 지수 평가에서 전국 대학 러시아·CIS 연구기관들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 내에 진입하였다(16위).

순위	대학	연구소	연구력 지수
1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5,382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119
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71
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928
5	송실대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2,855
6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705
7	충북대	우암연구소	2,589
8	성균관대	응용심리연구소	2,470
9	한신대	한신학술원	2,357
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60
11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2,041
12	동아대	석당학술원	1,982
13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1,958
14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37
15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1,926
16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1,884
1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870
18	한양대	우리춤연구소	1,865
19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1,844
20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1,794
상위 20개 부설연구소 연구력 지수 평균			2,492

##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회고



조규화 (제3, 6대 소장)

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외대에 부임한 얼마 후인 1972년 외대 부설 기관으로 국내 최초의 소련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당시로서는 한국과 소련과의 외교 및 학술관계 개선의 기회를 염두도 못 냈던 냉전시대여서 소련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연구원의 구성 및 연구프로젝트의 전망 등이 전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때였다.

우선 만주 건국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동원 교수님이 초대 소장을 맡으시고 과내 전임교수들이 수시로 모여 연구소 운영에 대한 안을 숙의하였다. 지금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연구소장을 역임할 때는 대학당국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당시의 본관 2층에 방 2개를 마련하고 탁자 몇 개와 텅텅 빈 서가들 몇 개만이 연구소 시설의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좌판은 만들어 줄 테니 외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소를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연구소는 3년 후 김학수 교수님이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시고 교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왔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서 내가 제3대 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한국 정치권에서도 국제문제를 지역권으로 나누어 연구할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공화당 정권은 특별 연구기금을 마련해 소련문제, 중국문제, 미국문제, 국제문제 등으로 세분해 소련문제는 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로, 중국문제는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로, 미국문제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로, 국제문제는 연대 동서문제연구소로 할당하고 4개 대학에 당시의 거액인 수천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한국정치학회와 국제정치학회의 회원과 간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학술회와 국제학술회에 참석해 타 대학 교수들과 인맥을 쌓고 정치권과 긴밀히 움직이는 교수들과 친밀할 수 있어, 정부의 대학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외대 소련문제연구소가 국내 유일의 소련연구소로서 당연히 지원 대상 연구소라고 주장했다. 반드시 나의 이런 활동 때문에 외대가 4대 지원 대상 대학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큰 도움은 되었으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 예로써 한양대의 중소문제연구소 소장인 유세희 교수가 자기 연구소가 대학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상당한 연구 활동과 업적을 쌓은 큰 연구소지만 국책 지원 대상대학에서 제외된 사실에 항상 마음 아파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였다.

곧이어 한국공산권문제연구회가 발족해 최근 작고하신 고대 김준엽 교수님이 회장을 맡고, 서울대 이흥구 교수님이 부회장을 맡고, 서강대 이상우 교수님이 총무를 맡았으며 본인은 소련문제연구 책임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공산권 연구도 이 때 시작이 되었다.

국책 연구비를 지원 받은 우리 연구소는 곧 소련 공산주의 이론, 정치, 사회, 경제, 문학에 관한 방대한 기본 자료를 탐색 구입하는 일과 Правда, Известия, Красная звезд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등의 간행물을 구입해 연구소 부속 도서실을 채우는 일이었다. 당시의 반공법에 의해 이 간행물들 대부분은 불온문서로 분류되어 구입은 커녕 서가에 공개진열도 허가가 안 되던 시대였다. 나는 우선 내가 공부하던 하버드대학 러시아연구소의 도서실장을 방문해 그들의 자료구입 목록과 구입처의 주소를 확보했으며 뉴욕 시립도서관의 동구과장을 만나 똑같은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수차례의 해외출장 여행을 떠나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 등의 연구소를 방문해 면담을 갖고 그들이 발간한 서적을 구입했고, 당시의 대형 서적회사들의 서지목록을 입수해 호텔에서 밤새 구입할 서적목록을 골랐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amazon.com에 들어가 얼마든지 필요한 서적과 자료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컴퓨터 사용 이전의 시대라 이렇게 직접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어로 된 책이나 간행물은 주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Four Continental 서점과 워싱턴 디시의 Виктор Камкин을 이용하였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사용빈도가 많은 Current Digest of Soviet Press는 지금 생각해도 잘 구입했던 자료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library build-up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연구소 도서실의 서가는 한국의 유일한 공산권 연구서적과 간행물들로 채워졌다. 지금은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중앙정보부로부터 파견 나온 관리들이 불온문서 보관 및 이용에 대한 검열을 했고 그 대장에 일일이 확인 도장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통일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해마다 연구소 연구원들의 노작이 발표, 간행되어, 지금도 결과물들이 연구소에 잘 보관 활용되고 있다고 믿는다.

1985년에 다시 제6대 연구소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도미하게 되어 다음해인 1986년 외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제 대학교수를 은퇴해 미국에 와 살고 있는지 어느덧 8년이 되면서 모두가 다 과거의 얘기지만, 아직도 외대 러시아연구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절의 그 패기와 정열은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 연구소의 소식과 논문요약들을 접하면서, 현 연구소장 홍완석 교수의 능력과 노고에 경하를 보내며 멀리서 연구소의 더 힘찬 발전과 번영을 바란다.

2011년 6월 8일 미국 뉴저지에서 조규화



# 러시아연구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강흥주 (제4, 10, 12대 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불혹의 나이 40, 완숙의 시기에 접어들어 더욱 알차게 발전하는 러시아연구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현재의 어느 연구소와도 비교 할 수 없는 당당하고도 완벽한 모습으로까지 발전시킨 연구소장과 연구원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정한 축하를 보냅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주변 상황과 조건이 제한적이고 통제적이며 권위적이었던 1970년대 초, 아직도 냉혹한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에 국제적인 눈치를 보았던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당위성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어를 연구하는 우리는 학문의 전당에서, 우리의 앞선 예견자적 소장님들은 불모지 같은 분야에 조그마한 초석이라도 깔고자 그야말로 겁 없이 선구자적 사명감만으로 그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고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주위로부터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한 연구소의 시작은 미미했었지만, 당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권연구의 시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몇몇 우리 연구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정진하였습니다. 때마침 6.23선언은 공산권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연구를 하기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공산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다소나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 활동에 활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들은 공산권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물론 정부 및 각계각층의 대공산권 담당자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연구소는 1990년 구소련의 공산정권 해체의 시작과 동구권의 공산정부의 붕괴로 인하여 일대 전환기를 맞아, 그에 걸맞게 연구소의 명칭도 '러시아연구소'로 개칭하고, 연구의 영역도 넓혀 대러시아의 모든 것,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학, 언어, 민속, 종교, 인종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섭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심도 또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現今)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적인 연구소 저널 '슬라브연구'를 통해 두 번 이상, 비정규적인 저널을 통해 자주 발표되는 활발한 학술활동은 타 유사 연구소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비약적이며 경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소의 활동은 정부의 인정을 받아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HK 연구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은 물론, 내면적으로는 우리 연구소가 이와 유사한 그 어느 연구단체보다도 실증적으로 외부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는 것이라 사료되어 지난 연구소장으로서 그 기쁨이 그지없으며, 이렇게까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소를 이끄는 홍완석 소장님과 연구원 모두에게 다시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러시아연구의 중심적 연구소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 40년을 되돌아보며



이종진 (제5, 9대 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공산권 연구와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본 대학에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었다. '러시아연구소'의 전신이다. 나의 학자생활은 우연히 연구소의 출범과 같이 시작되어 그와의 관계 속에서 끝났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먼 지난날을 되돌아본다. 옛 학생회관 2층, 직원이라고는 달랑 소장 과 간사 한 명, 학과 교수 몇 명이 고작이었던 그 초라한 쪽방 앞에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간판이 걸렸다. 국내 대학 최초로 소련 전문 연구기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40년간 본 연구소는 중단 없이 연구물을 생산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러시아 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나는 본 연구소의 업적을 대체로 세 가지로 보고 싶다. 연구, 전문가 훈련, 대외 지원으로.

먼저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초창기 환경은 열악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냉전 구조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소련과의 접촉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소련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자연히 이데올로기 색채가 덜한 어문학 분야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19세기 러시아 문학이나 소련의 반체제 작가에 국한되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발표된 6.23선언은 공산권 연구 분야의 해빙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요지의 이 선언은 그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공산권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국고 지원이 뒤따랐고, 연구소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산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까지 일반인은 물론 전공자들조차 마음대로 접할 수 없었던 '쁘라브다', '이즈베스찌야', '극동 문제'지 등을 정기 구독하여 소련 언론에 나타난 대한국 인식을 분석하고, 연구원이 직접 해외에 나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소련 총람'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언론, 스포츠 등 말 그대로 소련 전반을 개관하는, 당시로서는 방대한 유일의 소련 가이드북이었다. 이어 전문 학술지 '슬라브연구'를 창간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총서를 간행하기에 이른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빼레스프로이까는 동서 냉전 구조를 바꾸어 놓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소 양국은 그 의도는 상이할지라도 상호간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까지 달했다. 이런 유

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린 서울 올림픽은 양국 간에 정치-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특히 학술-문화교류는 올림픽 이후로 확장되어 정부차원의 교류가 민간 차원으로 이전되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여러 대학에 러시아 관련 학과들의 개설을 촉진시킨다.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그 무렵 학계, 관계, 사회 각처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전문가 상당수가 본 연구소에서 전문지식을 쌓았던 인재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는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렇듯 연구소는 고유의 연구 목적과 전문가 양성 외에 대 관-민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 기관에서 실시했던 러시아어 교육이나 자문도 대체로 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후일 대사로 파견되거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번역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많은 우수한 학술 논문이 연구소의 도움으로 번역되어 학술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었다.

위에서 일별했듯, 본교 '러시아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업적을 낳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등 시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가 국내와 아세아를 넘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응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소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중점 연구소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배려와 관련 기업의 후원도 있어야 한다. 러시아 대사관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의 후원자가 되도록 유도해야겠다.

러시아 연구는 단순히 학자의 연구 목록을 늘이거나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설립 40년을 축하하며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기연수 (제7, 13대 연구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러교류협회 회장)

Всё мгновенно, всё пройдёт;  
Что пройдёт, то будет мило. (А. С. Пушкин)

지금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 임곡동'이라는 그럴듯한 행정지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나는 그야말로 보통급행열차도 서지 않는 깡 시골인 전라남도 광산군 임곡면 임곡리 성내(城內, 성안)라는 마을에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선생의 13대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는 고향 초등학교를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광주(光州)라는 도회지로 나가 광주북중과 운 좋게도 사람들이 명문이라고 일컫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과공부는 제쳐두고 문학을 한답시고 스스로 해원(海遠)이라는 필명을 짓고, 문예반에 들어가 참 많이도 술만 퍼마셨다. 졸업이 가까워 오는데도 나는 여전히 운동주의 '序詩', 박목월의 '나그네', 황순원의 '소나기'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푸쉬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에 빠져들면서 더욱더 술만 많이 퍼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졸업시험도 일부 놓치고는 니체와 더불어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까지 빠지게 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안식처를 찾아 러시아 문학과 예술, 러시아 인텔리겐짜들의 품에 안기고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찾게 되었다.

행운으로 1961년 한국외대 러시아어과에 입학한 나는 4년 동안 적어도 러시아어만은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졸업 후 ROTC 출신 장교로 육군사관학교에서 10년여에 걸친 러시아어 교수생활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 후 1980년 당시 이종진 선배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모교인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외대 교수가 된지 만 6년이 되던 해인 1986년 제7대 러시아연구소(당시는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1991년까지 5년, 다시 제13대 연구소장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모두 거의 13년 동안을 연구소와 함께 하였다.

연구소장 재임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서너 가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1987년 '슬라브研究' 제3권을 제1, 2권의 팸플릿 형태로부터 벗어나 연구소 정식 학술저널 책자로 제작했던 일이다. 오늘날까지 20년도 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소 학술지의 제자(題字)는 당시 '붓글씨 학생동아리' 회장이었던 정의과 김인수 군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한 달 가까이 10개가 넘는 작품을 받아 그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다.

지금 보아도 우리 러시아연구소 학술지의 품위에 손색이 없다는 자부심이 든다. 그 다음으로는 본 학술지가 우리 한국외대에서는 최초로 2001년 12월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2004년 12월에는 정식 등재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는 우리 연구소, 우리 러시아어과의 커다란 즐거움이자 자랑이었음은 물론, 학교 당국도 몹시 기뻐하여 축하격려금까지 보내왔다. 그래서 이 격려금으로 연구소 관계자 및 러시아어과 선생들이 함께 즐거운 자축파티를 열었던 일은 함께 고생했던 제자 연구원들의 모습과 함께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특히 당시 연구소 연구원들로 애를 썼던 황성우, 김상원, 정옥경, 정세진 박사 등의 노고는 잊을 수 없는 공로이며, 이들이 오늘날 당연구소 및 다른 대학 연구소나 러시아학과 교수로서 활발히 학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군자삼락(君子三樂)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나에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연구소장이 끝나고 나는 곧 이어 2009년 정년을 맞이하였으며, 이제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을 넘어 종심(從心)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생각하면 연구소장 시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때의 고생들이 오늘날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러시아연구소 한 쪽 귀퉁이의 주춧돌이 되었으리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흥완석 연구소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소 멤버들의 새로운 노력으로 일취월장하는 우리 러시아연구소가 더욱 옥일승천(旭日昇天)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며, 이제는 휴일 날 혼자 조용히 연구소를 찾아가 이곳저곳 거닐면서 스스로 정한 해원잠명(海遠箴銘)이나 읊조리며 지난날의 그리움에 잠기고 싶다.

逍遙自適하며 巡覽周聽하니 森羅萬象이 時節因緣이라  
(속세를 떠나 한가로이 거닐고 스스로 느긋하며 두루 다니면서 널리 보고 들으니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물이 시절의 인연이라) 그러하니  
安時處順하고 瞭解寬恕하면 四海萬事가 相互和平할지니라.  
(지금 살고 있는 때를 편히 여기고 순리에 따라 지내면서 밝게 이해하여 넓게 용서하면 세상만사가 모두 서로 화평하게 될지니라)

## 러시아연구소 40년을 맞아



장실 (제14대 소장, 노어과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2층 계단을 오르면 노어과 사무실 옆방에 붙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현판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크지 않은 학교의 절대 공간이었지만 연구소는 나란히 붙은 4개의 방 모두를 연구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연구소장실과 행정실을 제외한 두 개의 방은 바깥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고 복도의 채광과 환기를 위한 윗 창문들은 철창으로 덧대어 있었다. 행정실을 통해서만 출입가능한 방들의 내부 출입문은 철문과 자물쇠로 출입 통제되어 있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이 허용되었기에 연구소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는 보안법상 국가 중앙정보부의 비취인가증이 발급되었다.

철의 장막을 두른 공산권 중주국 소련 땅을 밟는 듯한 야릇한 기분으로 철문을 통과, 안으로 들어서면 찌든 책꽂이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서가에는 '소련 대백과사전', '레닌전집', '붉은 군대'와 같은 각종 전집류, '북한 노동신문', '쁘라브다', '이스베스차', 그리고 '이스크라', '노보예 브레냐', '리제라뚜르나야 가제따', '끄로꼬질' 등의 유명잡지들이 뽁뽁이 들어차있다. 이른바 불온서적들이었고 II, III급 비밀로 분류된 문서들이었다. 40년 전 그 책 냄새와 출입자를 압도했던 서가의 위풍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느낌은 곧 노어가족 모두의 학문적 보람이자 긍지였고, 바로 그 방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학문연구의 요람이었다.

국내 유일의 한국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는 학부의 노어과와 대학원의 러시아 동구지역학과를 살찌웠고, 전문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제 간 전공 간 공동협력 연구수행, 그리고 정부 및 국제협력기관의 프로젝트 수행 등 인문사회과학분야 학문의 발전에 매진하면서 타 연구소의 모범이 되었다.

이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소를 만드신 초대 연구소장 동완 선생님을 비롯하여, 선·후학간의 학문적 연대의식과 화합을 앞세워 연구소를 지켜온 역대 연구소장님들의 헌신의 공으로 쌓여진 업적이었다. 여기에는 소장을 도와 연구소 행정운영에 자신을 희생한, 지금은 대학의 존경받는 교수 또는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온, 역대 책임연구원(연구소 간사)님들과 연구원의 공로 또한 대단히 컸다.

이제 새 모습을 갖춘 '러시아연구소' 40년 역사의 산증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바라건대, 오늘이 자랑과 자축의 회합만이 아닌 화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모두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큰 연구소가 될 것을 재다짐하는 뜻 깊은 순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연구소'가 '인문한국(HK) 해외지역 연구사업'을 수행한지 3년이 되는 해이다. 사업선정에 성공한 홍완석 현직 연구소장과 11명의 HK 교수진 및 연구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총 10년간의 사업계획의 완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단계를 탄탄히 구축하였다. HK 사업단의 각고의 노력과 그간의 공적을 큰 박수로 치하하면서, 확신하건대, 이 과업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며 더불어 러시아연구소는 학교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인문과학 연구소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

2부 러시아연구소 40년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은 그동안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러시아·CIS 전문연구소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마스터플랜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구소가 선정한 중점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개별적 주체로서 83개 연방주체를 분석하는 러시아 지방 연구, 둘째, 소연방이 해체된 후 지정학·지경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등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연구, 셋째, 기존의 서구 중심적 분석틀을 극복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러시아 연구의 시각을 제시하는 한국적 지역연구방법의 모색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영역(연구, 정보, 교육, 인적 네트워크, 사회서비스)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3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 연구소 40년 주요 활동 자료

### 01 학술활동

콜로키움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러시아·CIS 전문가초청특강  
해외명사초청강연회

### 02 출판활동

슬라브研究  
러시아 지역연구  
月刊 카프카즈 저널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  
Ukraine & Belarus  
Russia · CIS Focus  
Russia & Russian Federation  
단행본/총서

### 03 교류협력활동

연구·교육기관  
일반기관

40 Year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학사문화사업

3부 연구소 40년 주요 활동 자료

## 01 콜로키움

본 연구소는 혁신적 지역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국내외 여러 학자, 전문가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장으로서 2000년 3월부터 매월 1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해왔다.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 110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 1 101차 콜로키움(2011. 01. 06)  
러시아 지방경제 특성과 지방연구사례 - 변현섭(롯데경제경영연구소)
- 2 102차 콜로키움(2011. 02. 17)  
러시아의 극동 - 시베리아 개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 - 이양구(전 알마티 총영사)



37	2003. 04	러시아의 정체성 Abott Gleason(하버드대)	러시아연구소
38	2003. 05	뽀뜨르 대제의 개혁과 볼셰비끼 혁명의 비교연구 기연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39	2003. 06	21세기 상트 페테르부르크 재조명 홍완석 교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0	2003. 07	러시아 역사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재조명 기연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1	2003. 08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김현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2	2003. 09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지사 선거 특징 정옥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3	2003. 10	러시아의 세계경제통합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역할 김상원(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4	2003. 11	러시아의 언론기관과 대중의식의 형성 L. Podgornaya(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45	2003. 12	북카프카즈에서의 외국인 투자현황 김영옥(서울대)	러시아연구소
46	2004. 01	북카프카즈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합치主義 연구 試論 현승수(동경대 박사과정)	교수회관 세미나실
47	2004. 02	최근 코카서스 정세와 러시아의 대응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시청각교육원 2203호
48	2004. 03	북카프카즈 지역의 지정학적 함의 기연수(한국외대)	교수회관 강연실
49	2004. 04. 29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학과 카프카즈 지역의 정치경제학 박태성(부산외대) 다게스탄은 왜 체첸과 다른가? 정옥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0	2004. 05. 14	러시아 경제개혁과 석유 김상원(한국외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경제 잠재력 이종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1	2004. 05. 30	푸틴 집권 2기 체첸 정상화 방안 박정호(한국외대) 보복의 악순환, 멀고먼 체첸의 평화 황성우(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2	2004. 06. 25	러시아문화 특강 유희권(미국 뉴욕 시립도서관)	교수회관 세미나실

53	2004. 10. 01	소연방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형성 Stanislav S. Shushkevich(전 벨라루스 최고소비에트 의장)	교수회관 강연실
54	2004. 12. 21	자카프카지에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박정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5	2005. 01. 20	자카프카지에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석 이종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6	2005. 02. 25	아제르바이잔 현대정치에서 이슬람의 역할 정옥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7	2005. 03. 30	소비에트시대의 정치엘리트와 '새로운 계급' 이론 정옥경(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58	2005. 04. 26	포스트소비에트 엘리트 특성 기연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59	2005. 05. 27	1920년대 아르메니아의 소비에트 권력수립과정 정옥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소
60	2005. 09. 24	트랜스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의 '신 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국제관 211호
61	2005. 10. 29	'동'과 '서' 사이의 우크라이나 홍석우(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2	2005. 11. 26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김선래(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국제관 211호
63	2005. 12. 23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안보와 외국인투자 분석 이종문(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4	2006. 02. 25	우크라이나의 脫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김상원(한국외대) 구암(GUAM) 창설과 헤게모니 갈등 정세진(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5	2006. 03. 25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시민혁명과 헤게모니 충돌 비교 황성우(한국외대) 우크라이나 정치엘리트 연구 정옥경(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6	2006. 04. 29	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과 우크라이나 김용환(한국외대) 전환기 우크라이나 대외정책 기본방향 및 특성 연구 박정호(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7	2006. 06. 20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할구조 연구 박태성(부산외대) 흑해-카스피해 지역의 세계사적 의미와 전략적 중요성 기연수(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68	2006. 11. 22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발전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Dulat Bakisev(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국제관 5층
69	2006. 12. 22	카자흐스탄의 현황과 대응전략 손영훈(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307호
70	2007. 02. 24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반러시아 경향 정세진(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1	2007. 03. 26	한-러 양국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 Aleksandr Timonin(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겸 부대사)	어문관 1313호
72	2007. 03. 31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김선래(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3	2007. 04. 28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 김용환(한국외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개발전략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종문(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4	2007. 05. 31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 김상원(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정치엘리트 연구: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정옥경(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5	2007. 07. 28	21세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박정호(한국외대)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의 미래 전망 홍석우(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6	2007. 09. 20	우크라이나 의회내 정파들의 이념적 정향 분석 박정호(한국외대) 유센코 정권의 개방화 전략과 투자 동향 변화 윤성학(한국외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의 문화적 토대 홍석우(한국외대)	국제관 211호
77	2007. 11. 28	2007년 우크라이나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정국 전망 박정호(한국외대)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의 경쟁력 비교연구 윤성학(한국외대) 우크라이나 정치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홍석우(한국외대)	교수회관 대회의실
78	2008. 02. 01	쿠츠마 시기 우크라이나 안보정책과 국내 환경 박정호(한국외대) 우크라이나 건설산업의 환경연구 윤성학(한국외대) 정치적 풍자와 농담: 우크라이나 사회문화현상의 메타포 홍석우(한국외대)	법학관 4층 세미나실

79	2008. 05. 28	쿠츠마 시기 우크라이나 정치문화의 특성 박정호(한국외대) 우크라이나의 대중양아시아 가스협력사업의 전망 윤성학(한국외대) 우크라이나의 축일과 기념일: 국가건설의 측면에서 홍석우(한국외대)	교수회관 세미나실
80	2008. 09. 25	동과 서 사이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박정호(한국외대) 벨라루시 경제구조의 특징과 성장 전망 윤성학(한국외대) 대조국 전쟁과 현대 벨라루시의 민족정체성 홍석우 박사(한국외대)	교수회관 강연실
81	2008. 11. 27	벨라루시의 국가건설전략과 민족정체성 박정호(한국외대)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윤성학(한국외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벨라루시의 정체성 홍석우(한국외대)	교수회관 대회의실
82	2009. 03. 27	벨라루스 민족주의의 특성 연구 박정호(한국외대) 한국과 벨라루스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윤성학(한국외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가연합방안에 대한 고찰 김선래(한국외대)	교수회관 대회의실
83	2009. 04. 20	벨라루스의 민족정체성과 국가발전전략 박정호(한국외대) 벨라루스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윤성학(한국외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벨라루스 정체성 홍석우(한국외대)	벨라루스 민스크 호텔
84	2009. 04. 23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 가능성과 한계 홍완석(한국외대) 우크라이나의 민족정체성과 국가발전전략 박정호(한국외대) 우크라이나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윤성학(한국외대) 우크라이나 정치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홍석우(한국외대)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대 대강당
85	2009. 09. 24	1864년 러시아 사법개혁 이시연(상명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3호
86	2009. 10. 29	스탈린 체제의 성립과 소련 노동조합, 1928-1937 조준배(서울대)	국제사회교육원 강의동 201호



87	2009. 11. 26	현대 러시아에서의 루스끼 민족주의 김태연(고려대)	국제사회교육원 강의동 201호
88	2009. 12. 21	러시아의 사회운동 정재원(서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89	2010. 01. 14	알렉산드르 라디시체프와 18세기 러시아 문화: 계몽주의와 감상문학 최진석(서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106호
90	2010. 02. 18	러시아 경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변현섭(롯데경제경영연구소)	국제관 113호
91	2010. 03. 25	해외로 이주한 러시아 음악가들 최용길(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92	2010. 04. 29	러시아 과학기술 현황 및 협력방안 송용원(한·러 산업기술협력센터 소장)	어문관 313호
93	2010. 05. 13	러시아 바로보기 손성환(한국외대 초빙교수, 전 주 시카고 총영사)	어문관 313호
94	2010. 06. 30	현대 러시아어 약어 사용의 언어 문화적 특성 손현익(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95	2010. 07. 22	작가의 내적 양면성과 마스크 김준석(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96	2010. 08. 25	키르기스스탄의 자주국방과 외국군 주둔문제 김선래(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97	2010. 09. 16	선·후진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러시아 비즈니스 김진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본관 504호
98	2010. 10. 28	러시아 지역 정체성에 대하여 -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 비교를 중심으로 Irina A. Korgun(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99	2010. 11. 29	러시아 대내외 정책과 HK 연구사업에의 시사점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0	2010. 12. 20	로컬, 로컬리티와 인문학의 공간 - 한국적 시선으로 찾는 장소성 이명수(부산대)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1	2011. 01. 13	러시아 지방경제 특성과 지방연구사례 변현섭(롯데경제경영연구소)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2	2011. 02. 17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 이양구(전 알마티 총영사)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3	2011. 03. 31	지역 연구를 위한 분석 단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섭 양오석(한국외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도교수)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4	2011. 04. 21	공공외교와 한-러관계 Aleksai Maloletko (러시아 외무성 국제협력청 한국대표부 소장)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5	2011. 05. 30	시베리아 사하 공화국의 기후 및 환경변화와 원주민 생활 양식의 변화 Susan Crate(조지 메이슨대)	공학관 207호
106	2011. 06. 30	두 도시 이야기: 모스크바와 타시켄트에서 문화를 상상하고 실천하기 남영호(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7	2011. 07. 28	한민족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와 동북아 세력균형 박병환(주 이르쿠츠크 총영사)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08	2011. 08. 25	핀-위구르 세계에서의 민족-정치적 분쟁들: 러시아 마리엘 공화국의 사례 Aleksandr E. Efremov(모스크바 국립대 총장실 혁신 및 국제학술관계국 선임연구원)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106호
109	2011. 09. 29	코미 공화국 내 지역별 정체성의 차이와 원인 김혜진(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411호
110	2011. 10. 27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러시아 소득불평등 심화 김선래(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 411호



100차 콜로키움(2010. 12. 20)  
로컬, 로컬리티와 인문학의 공간 -  
한국적 시선으로 찾는 장소성 - 이명수(부산대)



104차 콜로키움(2011. 04. 21)  
공공외교와 한-러관계 - Aleksai Maloletko(러시아 외무성 국제협력청 한국대표부 소장)

## 02 국내학술회의

본 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는 장으로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초기에는 학술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지만, 1998년 국내학술회의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2011년 4월까지 35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아래 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학술회의 개최현황이다.



34차 국내학술회의(2010. 11. 19)  
한·러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

33차 국내학술회의(2010. 11. 12)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차수	개최일	주제	장소
18	1998. 04. 11	러시아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대학원 소강당
19	1998. 09. 12	러시아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대학원 소강당
20	1999. 04. 18	한·러 문화교류의 현황	대학원 소강당
21	1999. 10. 20	러시아문화연구의 방법과 내용	대학원 소강당
22	2000. 04. 22	러시아와 CIS에서의 한국학연구	시청각교육원 203호
23	2001. 12. 14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시청각교육원 203호
24	2004. 06. 11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이슬람: 북카프카즈를 중심으로	교수회관 세미나실
25	2004. 12. 21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이슬람: 자카프카즈예를 중심으로	교수회관 세미나실
26	2006. 05. 27	냉전후 세계모니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서울캠퍼스 본관 107호
27	2008. 12. 10	한-러 경제협력과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 소외의 역사를 넘어 가능성의 미래로	교수회관 강연실
28	2008. 12.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 한-러 3대 新실크로드 구상과 비전	교수회관 강연실
29	2009. 06. 20	한국슬라브학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공동주최 동과 서 사이에서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교수회관 강연실, 세미나실
30	2009. 09. 25	한·러 문화교류 20년의 성과와 전망	서울캠퍼스 본관 109호
31	2010. 03. 20	한국슬라브학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공동주최 2010년 춘계 정기학술대회	교수회관 강연실
32	2010. 09. 30	한국슬라브학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공동주최 2010년 추계 정기학술대회	교수회관 강연실
33	2010. 11. 12	HK 국내학술회의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4층
34	2010. 11. 19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공동주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한·러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35	2011. 04. 01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 한-러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	한국관광공사 T2아카데미
36	2011. 11. 11	HK 국내학술회의 경계에 선 러시아 문화: 대화성, 혼종성, 정체성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  
2

1 29차 국내학술회의(2009. 06. 20)  
동과 서 사이에서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2 33차 국내학술회의(2010. 11. 12)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 03 국제학술회의

본 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권위 있는 해외학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성과를 함께 발표 및 토론하는 장으로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초기에는 제한된 수의 해외학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로 진행되었지만, 1998년 참여의 폭이 확대되면서 국제학술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차 국제학술세미나(1989. 11. 07)  
최근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변화(Poland: The Heart of Europe)



16차 국제학술회의(2010. 10. 07)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차수	개최일	주제	장소
1	1979. 10	기무라 히로시 교수(홋카이도대 소련문제연구소)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최근의 소련정치와 그 전망: 브레즈네프와 그 이후	대학원 소강당
2	1985. 10	G. W. 브레슬라우어 교수(버클리대)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고르바초프 체제의 성격과 장래	연수원 강당
3	1987. 09	블라디미르 안드레예프 교수(프랑스 그르노블대)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최근 소련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러시아연구소
4	1988. 12. 13	게일 W. 라피두스 교수(버클리대)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고르바초프의 대내개혁과 외교정책 (Gorbachev's Agenda: Domestic Reforms and Foreign Policy)	러시아연구소
5	1989. 11. 07	안드레 카피셰프스키 교수(폴란드 야길로니아대)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최근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변화 (Poland: The Heart of Europe)	대학원 소강당
6	1998. 11	러시아 어문학의 양면성	대학원 소강당
7	1999. 04	한·러 문화교류의 현황	대학원 소강당
8	1999. 10	러시아 문화연구의 방법과 내용	대학원 소강당
9	2000. 02. 29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중국연구소 공동주최 중국과 러시아의 소수민족정책과 국외교포 정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오팔룸
10	2000. 09. 30	러시아 정치의 이해와 한러관계의 발전 전망	교수회관 세미나실
11	2001. 07. 12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공동주최 CIS지역 한국학중흥방안	교수회관 강연실
12	2002. 10. 12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	서울캠퍼스 본관 세미나실
13	2003. 10. 09	21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재조명	교수회관 세미나실
14	2005. 06. 09	러시아 국가전략과 이슬람	교수회관 세미나실
15	2009. 09. 29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사하 친선협회 공동주최 한국-사하 학술대회 시베리아의 보고 야쿠티아의 미래적 가치	법학관 801호

16	2010. 10. 07	HK 국제학술회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국제관 애경홀
17	2011. 04. 08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 1차 공동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	대학원 411호 (BRICs 국제포럼장)
18	2011. 07. 11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앨버타대 Kule Centre for Ukrainian and Canadian Folklore 공동주최 Two Decades Later: Post-Soviet Transformation in the Balkans and Eastern and Central Europe	캐나다 앨버타대 올드야츠 관
19	2011. 08. 04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5호
20	2011. 12. 15-16	HK 국제학술회의 포스트 소비에트 20년과 현대 러시아의 정치공간: 이데올로기, 국가체제, 그리고 세계전략 (20 Years On-Post-Soviet Russian Politics: Ideologies, State Systems, and World Strategies)	국제관 애경홀



16차 국제학술회의(2010. 10. 07)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17차 국제학술회의(2011. 04. 08)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 1차 공동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

04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

본 연구소는 2008년 9월부터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일환으로 본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와 공동으로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전문가 초청특강을 매 학기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2010. 05. 28)  
한-러 수교 20주년의 의미와 양국 관계 전망 - Konstantin Vnukov(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2010. 12. 10)  
유라시아 시대 시베리아와 한반도, 연해주와 한민족 - 이길주(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차수	개최일	주제 및 발표자	장소
<b>2008년 2학기</b>			
1	2008. 09. 11	두바이, 무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 서정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교수회관 2층 강연실
2	2008. 09. 18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수회관 2층 강연실
3	2008. 09. 25	벨라루시는 어디를 지향하나?: 친러시아와 친유럽 사이에서 갈등하는 벨라루시 김석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교수회관 세미나실
4	2008. 10. 02	한국과 러시아에서 신정부의 출범과 양국관계 전망: 러시아의 시각 Aleksandr V. Voroncov(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 및 몽골학과 주임교수)	국제관 503호
5	2008. 10. 09	한국의 과학기술 전략 파트너 - 유라시아 송용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공학과 교수)	교수회관 2층 강연실
6	2008. 10. 16	제1강: 대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제2강: 러시아 현지 기업경영 - 인사관리, 마케팅·홍보전략 김승철(KOTRA 모스크바 법인장)	교수회관 2층 강연실
7	2008. 10. 23	제1강: 러시아의 부활과 한·러 관계 전망: 한국의 시각 제2강: 한국에게 중앙아시아의 의미와 협력 방안 백주현(국무총리실 외교심의관)	교수회관 2층 강연실
<b>2009년 1학기</b>			
1	2009. 03. 09	타지키스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전망 Makhmaisuf Imomov(타지크 슬라브대 총장)	국제관 503호
2	2009. 03. 13	제1강: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 대응과 시사점 제2강: 러시아 가스산업의 국제화 방향과 한국에 시사점 김석환(산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국제관 101호
3	2009. 03. 20	제1강: 러시아 극동 개발 프로젝트와 한국의 참여 방안 제2강: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윤성학(CIS Consulting & Trading 대표)	국제관 101호
4	2009. 03. 27	벨라루스 공화국의 형성과 발전: 벨라루스와 한국 관계사 Aleksandr E. Guryanov(주한 벨라루스 대사)	교수회관 2층 강연실
5	2009. 04. 03	제1강: 러시아 증권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2강: 러시아 루블화의 역사와 환율시스템 이종문(부산외대 교수)	국제관 101호
6	2009. 04. 10	제1강: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 FSB(연방보안부)를 중심으로 제2강: 러시아 실로비키 탐구: 형성 배경, 정치적 역할과 위상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제관 101호

7	2009. 04. 17	제1강: 마뜨료쉬가와 쌍두독수리의 나라 제2강: 마피아인가? 시민사회인가? 김우승(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국제관 101호
8	2009. 05. 01	제1강: 국회의원이 바라본 러시아 제2강: 한-러 협력과 문화 교류 김형주(전 국회의원, 한러경제문화연구원 원장)	국제관 101호
9	2009. 05. 08	제1강: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평가 및 전망 제2강: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관 101호
10	2009. 05. 15	제1강: 최근 러시아 금융, 거시경제 변화와 전망 제2강: 러시아 소비시장의 특징 오영일(한국투자증권 CIS·동유럽 팀장)	국제관 101호
11	2009. 05. 22	제1강: 러시아 은행산업: 발전과정, 현황, 특징 제2강: 국내 은행의 러시아 금융시장 진출과 전략 한남주(외환은행 모스크바사무소장)	국제관 101호
12	2009. 05. 29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춘계 학술대회[대체]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변동과 역동성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13	2009. 06. 05	제1강: 러시아의 군사력 변화와 미래 안보전략 제2강: 한·러 군사협력의 현황과 추세 심경욱(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제관 101호
14	2009. 06. 12	제1강: 러시아 영화사 개관 제2강: 해방기 러시아 영화 <학이 난다> 분석 홍상우(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국제관 101호
16	2009. 06. 19	제1강: 세계 속의 러시아 경제와 대외무역구조 제2강: 러시아 경제의 특징과 잠재력 SWOT분석 김상원(수원대)	국제관 101호
17	2009. 06. 26	제1강: 러시아인의 삶과 정신세계 제2강: 러시아의 도시문학(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문준일(경상대)	국제관 101호
18	2009. 07. 31	아르메니아 대외경제정책과 한-아르메니아 관계 발전 모색 Gegham Gharibjanian(아르메니아 국회 사무총장)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6호
19	2009. 08. 21	러시아연방 의회의 청소년 정책: 발전과 전망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парламенте РФ: развит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Marino. A. Mukabenova (러시아연방 하원의원)	국제사회교육원 강의동 201호
<b>2009년 2학기</b>			
1	2009. 09. 04	러시아 - CIS의 발전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방향 김소희(외교통상부 정보분석과 서기관)	국제관 101호

2	2009. 09. 11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영토문제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Anatolii Koshk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동방학대학 교수)	국제관 503호
3	2009. 09. 18	제1강: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제2강: 중앙아시아와 한국과의 경제관계 조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관 101호
4	2009. 09. 25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09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한·러 문화교류 20년의 성과와 전망	서울캠퍼스 본관 109호
5	2009. 10. 09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Foreign Economic Activity Alternatives Dmitrii A.(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원)	국제관 101호
6	2009. 10. 16	제1강: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러 관계 현황과 전망 제2강: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중앙아시아 관계 현황과 전망 임수석(외교통상부 유라시아과 과장)	국제관 101호
7	2009. 10. 23	제1강: 러시아 기업문화의 이해 제2강: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금융산업그룹의 변화 이상준(국민대 교수)	국제관 101호
8	2009. 10. 30	제1강: 세계 에너지의 정치경제학-서설 제2강: 나부코(Nabucco) vs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유라시아 에너지 개발과 운송의 지정학 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관 101호
9	2009. 11. 06	제1강: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이해 제2강: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전망 한중만(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국제관 101호
10	2009. 11. 13	제1강: 푸틴의 군사개혁: 내용과 방향 제2강: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권력구조 이홍섭(국방대 교수)	국제관 101호
11	2009. 11. 20	제1강: 국가자본주의의 두 유형: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섹터 거버넌스 제2강: 북한과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비교 김태환(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연구실장)	국제관 101호
12	2009. 11. 27	제1강: 러시아 연방제도의 변화 제2강: 러시아의 인구위기와 이주정책 김성진(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관 101호
13	2009. 12. 04	제1강: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회고와 전망(1) - 페레스트로이카에서 1990년대 말 열친시기까지 제2강: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회고와 전망(2) - 푸틴시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김영진(한양대 HK교수)	국제관 101호

14	2009. 12. 11	제1강: 러시아: 역사와 이념 제2강: 유라시아 지정학적 변동과 전망 신범식(서울대 교수)	국제관 101호
<b>2010년 1학기</b>			
1	2010. 03. 06	해외명사 초청강연회[대체] Why Russia is not a democracy Peter Rutland(웨슬리안대 교수)	교수회관 2층 회의실(강연실)
2	2010. 03. 12	제1강: 러시아인의 음식과 삶 제2강: 러시아인의 문화적 성향 김근식(중앙대 노어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3	2010. 03. 19	제1강: 19세기 러시아 미술사-이동파 제2강: 20세기 러시아 미술사-상징주의부터 현대미술까지 이진숙(Interalia Art Company Art Director)	대학원 411호
4	2010. 03. 26	제1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IS 거시/금융 경제 변화 제2강: CIS 투자무엇이 문제인가? 오영일(한국투자증권 CIS·동유럽 팀장)	대학원 411호
5	2010. 04. 02	제1강: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와 스킨헤드 제2강: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의 의미와 대북경제 Andrei Lankov(국민대 교수)	대학원 411호
6	2010. 04. 09	제1강: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I 제2강: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II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학원 411호
7	2010. 04. 16	제1강: 러시아 및 CIS국가 사법제도 제2강: 러시아 및 CIS국가 투자법 이화준(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	대학원 411호
8	2010. 04. 23	제1강: 한국과 러시아의 노래, 그 친숙한 낯설음 제2강: 국민음악파에서 쇼스타코비치에 이르기까지 이연성(성악가, 세계민족문화예술제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원 411호
9	2010. 04. 30	제1강: 한국외교관이 바라본 러시아, 러시아인 제2강: 한·러 수교 20주년의 의미와 향후 양국관계 발전전망 정태익(전 주러 대사, 법무법인 율촌 고문)	대학원 411호
10	2010. 05. 07	제1강: 러시아인이 본 한국, 한국인 제2강: 러시아 언론의 현황과 사회적 역할 Artem Sanzhiev(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서울특파원)	대학원 411호
11	2010. 05. 14	제1강: 유라시아의 민주주의와 색채혁명 제2강: 유라시아의 사회 네트워크와 부패 엄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대학원 411호

12	2010. 05. 28	한·러 수교 20주년의 의미와 양국 관계 전망 Konstantin V. Vnukov(주한 러시아대사)	국제관 503호
13	2010. 06. 04	제1강: 한러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전망 제2강: 창의적 사고방법 'TRIZ이론'이란 무엇인가? 송용원(한국산업기술대 나노공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14	2010. 06. 11	제1강: 이콘의 문화사: 벽화에서 사진까지 제2강: 21세기 러시아 사회와 대중영화 김수환(한국외대 교수)	대학원 411호
<b>2010년 2학기</b>			
1	2010. 09. 03	제1강: 러시아 권력구조와 경제발전의 함수관계 제2강: 러시아의 북한 핵개발 평가 및 해결 입장 박중수(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	대학원 411호
2	2010. 09. 10	제1강: 러시아 민요와 클래식 제2강: 러시아 오페라와 발레 장일범(음악평론가,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대학원 411호
3	2010. 09. 17	제1강: 유라시아 지역의 권위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제2강: 유라시아 지역의 권위주의와 리더십 강봉구(한양대 HK 연구교수)	대학원 411호
4	2010. 10. 01	제1강: 한국외교 60년의 발자취 제2강: 한·러 수교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 이규형(전 외교통상부 차관, 전 주러 대사)	대학원 411호
5	2010. 10. 08	제1강: 러시아 및 CIS 국가 사법제도 및 투자법제 제2강: 러시아 및 CIS 국가 투자 시 법적 유의사항 이화준(법무법인 울촌, 러시아 변호사)	대학원 411호
6	2010. 10. 15	제1강: 러시아 철도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제2강: 유라시아 철도와 한러협력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정책부장)	대학원 411호
7	2010. 10. 22	제1강: 문법으로 본 러시아어의 언어적 세계상 제2강: 어휘로 본 러시아어의 언어적 세계상 홍택규(한림대 러시아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8	2010. 10. 29	제1강: 유라시아 에너지 정치경제학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정책 제2강: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역할 류지철(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	대학원 411호
9	2010. 11. 05	제1강: 러시아의 정당체제 제2강: 세계질서와 미·러관계 유진숙(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10	2010. 11. 12	HK 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대체]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4층

11	2010. 11. 19	제1강: 러시아의 영혼, 보드카 제2강: 러시아의 걱정, 결투 문준일(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대학원 411호
12	2010. 11. 26	제1강: 러시아의 세계전략 제2강: 러시아의 유럽정책 고상두(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대학원 411호
13	2010. 12. 03	제1강: 레프 톨스토이 다시 읽기: 레프 톨스토이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논쟁 제2강: 러시아 아방가르드 문학과 미술의 대화 박종소(서울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러시아연구소 소장)	대학원 411호
14	2010. 12. 10	제1강: 유라시아 시대 시베리아와 한반도 제2강: 유라시아 시대 시베리아 연해주와 한민족 이길주(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b>2011년 1학기</b>			
1	2011. 03. 04	제1강: 러시아·CIS 시장 일반개황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제2강: 러시아·CIS 시장 진출 전략 나윤수(KOTRA 프로젝트 지원처장, 전 CIS 지역 본부장)	대학원 411호
2	2011. 03. 11	제1강: 제정러시아 시대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제2강: 러시아 혁명과 한국독립운동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3	2011. 03. 18	제1강: 푸틴, 2012년 대통령 권좌에 다시 오를까? 제2강: 러시아 정당체제의 과거, 현재, 미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대학원 411호
4	2011. 03. 25	제1강: 러시아 경제 현황과 전망 제2강: 한·러 경제협력의 기회와 제약성 Pavel Leshakov(모스크바 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대학원 411호
5	2011. 04. 01	제1강: 러시아 문화의 에코시스템과 문학의 정신사적 특징: 러시아적 전통 제2강: 러시아 문화의 에코시스템과 문학의 정신사적 특징: 서구의 영향에 대한 반응 김현택(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통번역대학원장)	대학원 411호
6	2011. 04. 08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 1차 공동 국제학술회의[대체] 한국과 러시아, 세계화를 만나다: 변화, 도전, 미래 (Россия и Korea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вызовы,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대학원 411호
7	2011. 04. 15	제1강: 러시아의 정치경제체제와 국가 성격 제2강: 포스트 소비에트 정치경제 체제 변혁의 상이한 경로 김태환(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대학원 411호

8	2011. 04. 22	제1강: 최근 러시아 항공산업의 구조개혁 현황 제2강: 아에로플로트의 비즈니스 현황과 전략 Sergei V. Salov(아에로플로트 서울지사장)	대학원 411호
9	2011. 04. 29	제1강: 현대 러시아어의 어휘체계 특징 제2강: 현대 러시아어의 문체적 특징 유학수(선문대 교수)	대학원 411호
10	2011. 05. 06	제1강: 소련체제의 전개와 붕괴(1917~1991) 제2강: 현대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박수현(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한국슬라브학회장)	대학원 411호
11	2011. 05. 13	제1강: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정책: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2강: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정치경제 관계 여인근(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대학원 411호
12	2011. 05. 27	중앙-지방 관계, 러시아 지역주의와 정체성,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Irina Busygina(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교수)	대학원 411호
13	2011. 06. 03	제1강: 러시아 음악의 태동과 서양 음악의 유입 제2강: 민족음악과 낭만음악 남완(성악가)	대학원 411호
14	2011. 06. 10	러시아의 과학기술 김영일(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대학원 411호
<b>2011년 2학기</b>			
1	2011. 09. 02	제1강: 러시아의 북극전략 제2강: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김석환(주성대 부총장)	대학원 411호
2	2011. 09. 09	제1강: 푸틴과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오늘과 내일 제2강: 러시아의 약소국 내정간섭: 키르기스스탄과 조지아의 사례 강봉구(한양대 HK 교수)	대학원 411호
3	2011. 09. 16	제1강: 우크라이나와 CIS의 정치경제관계 분석 제2강: 한·우크라이나 관계와 국제정치적 시각의 적용 박노벽(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	대학원 411호
4	2011. 09. 23	제1강: 러시아 경제 현황 제2강: 러시아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경제관계 Lyudmila Popova(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대학원 411호
5	2011. 09. 30	제1강: 러시아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제2강: 러시아 에너지와 한반도 남북러 삼각협력 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대학원 411호
6	2011. 10. 07	제1강: 19세기 말-20세기 초 한·러관계사, 러시아의 대한정책 (1894-1904) 제2강: 고종황제와 러시아(1905-1910)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학원 411호

7	2011. 10. 21	제1강: 시간의 지도: 달력과 권력의 함수관계 제2강: 음식으로 보는 역사, 음식이 만든 역사 황성우(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대학원 411호
8	2011. 10. 28	제1강: 러시아 증권시장의 특징과 발전전망 제2강: 러시아 루블화의 역사와 환율시스템 이종문(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9	2011. 11. 04	제1강: 세계문학과 러시아 류(流) 제2강: '나보코프와 <롤리타> 미스터리: 도스토예프스키는 삼류 작가?' 권철근(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대학원 411호
10	2011. 11. 25	러시아 음악 대가들의 이야기 제1강: 샬라벤 제2강: 쇼스타코비치 이연성(성악가, 세계민족문화예술제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국제관
11	2011. 12. 02	제1강: 러시아 법체계의 이해 제2강: 러시아의 조세제도와 외국인 투자법 배정환(법무법인 미르 대표변호사)	대학원 411호
12	2011. 12. 09	제1강: 러시아 연방구조의 변화와 의미 제2강: 러시아의 사회 안보와 외국인 이주문제 김성진(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2010. 05. 07) - Artem Sanzhiev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서울특파원)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2010. 11. 05)  
 -유진숙(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특강(2011. 04. 22)  
 Sergei V. Salov(아에로플로트 서울지사장)

05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舊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본 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지역연구 성과를 수용 및 발전시키려는 차원에서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초청대상이 점차 학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되면서, 2010년 3월부터 명칭을 해외명사 초청강연회로 변경했다.



1  
 2

1 1차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1981. 10) The Soviet Economy to the Year 2000 - Herbert S. Levine, Daniel L. Bond  
 2 2차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2010. 07. 13)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러시아의 정책 - Vladimir Kolotov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방학부 역사학과장)

차수	개최일	주제	연사
<b>해외학자 초청세미나</b>			
1	1981. 10	The Soviet Economy to the Year 2000	Herbert S. Levine, Daniel L. Bond
2	1987. 09. 02	A Russian Decadent's Search for the True Aleksandr Pushkin	Joan D. Grossman(버클리대 교수)
3	1987. 10	A Hungarian View on the Present and Future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Jeno Hamori
4	1988. 08. 23	소련 경제와 정치개혁	Wallace(글래스고우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소장)
5	1989. 12. 21	소련의 빼레스뜨로이카와 동구 및 동아시아 자국	Vladimir Li(소련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동방학부장)
6	1990. 04. 26	한· 소관계의 발전전망과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	V. B. Vorontsov(소련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극동의 제문제' 편집장)
7	1990. 09. 25	빼레스뜨로이카의 경제전망	Mikhail Ivanovich(박수호)(유즈노 사할린 국립사범대 정치경제학 교수)
8	1991. 04. 24	소연방의 사회 정치적 상황의 발전 전망	Oleg Kalugin(레닌그라드대 교수)
9	1991. 09. 19	쿠데타 이후의 소련정치 상황	Vladimir Li(모스크바대 교수, 소련 외무부 외교전문위원)
10	1991. 10. 29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강대국 90년대 소련의 국내 및 외교정책	A. Stepanov(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총장)
11	1991. 12. 10	우크라이나의 역사, 문화적 특성 우크라이나의 장래: 정치, 경제적 전망	V. V. Skopenko(키예프 국립대 총장) V. K. Zabigailo(키예프 국립대 대외관계실장)
12	1995. 10. 20	발렌틴 라스푸틴 초청세미나	Valentin Rasputin(작가)
13	1995. 11. 27	게오르기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 초청세미나	Georgii F. Kynadze(주한 러시아 대사)
14	1996. 05. 09	아나톨리 김 초청세미나	Anatolii Kim(작가)
15	2000. 03	푸틴 이후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망	Vladimir Li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16	2000. 11	한러관계의 실제와 전망	Valerii Sukhinin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17	2000. 12. 06	21세기 한· 러 외교전략 현황	A. V. Torkunov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총장)
18	2008. 10. 02	한국과 러시아에서 신정부의 출범과 양국관계 전망 : 러시아의 시각	Aleksandr V. Voron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연구소 한국몽골과 주임교수)
19	2009. 03. 09	타지키스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전망	Makhmaisuf Imomov (타지크 슬라브대 총장)
20	2009. 03. 27	벨라루스 공화국의 형성과 발전: 벨라루스와 한국 관계사	Aleksandr E. Guryanov (주한 벨라루스 대사)
21	2009. 07. 31	아르메니아 대외경제정책과 한-아르메니아 관계 발전 모색	Gegham Gharibjanian (아르메니아 국회 사무총장)
22	2009. 08. 21	러시아연방 의회의 청소년 정책: 발전과 전망	Marina A. Mykabenova (러시아연방 하원의원)
23	2009. 09. 11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영토문제	Anatolii Koshk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대학교 교수)
24	2009. 10. 09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발전 전망과 외국인 경제활동 방안	Dmitrii A. Izot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선임연구원)
<b>해외명사 초청강연회</b>			
1	2010. 03. 06	Why Russia is not a democracy	Peter Rutland (웨슬리안대 교수)
2	2010. 07. 13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러시아의 정책	Vladimir N. Kolotov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방학부 역사학과장)
3	2010. 09. 18.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Sergei O. Kurvanov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방학부 극동역사학과 교수)
4	2011. 06. 04	예술텍스트 번역에 관하여	Anatolii Kim (작가)
5	2011. 08. 02	What is Russian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in a Post-Nationalist Age	Andrew Wachtel (노스웨스턴대 교수)
6	2011. 09. 29	미국의 러시아 언어학 동향 및 전망	Eva Eckert (체코 앵글로-아메리칸대 교수)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90. 04. 26)  
 한·소관계의 발전전망과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  
 - V. B. Vorontsov(소련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극동의 제문제' 편집장)



해외학자 초청세미나(1989. 12. 21)  
 소련의 베레스뜨로이까와 동구 및 동아시아 자국  
 - Vladimir Li(소련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동방학부장)





1  
2

- 1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1991. 04. 24) 소련방의 사회  
정치적 상황의 발전 전망 -  
Oleg Kalugin(레닌그라드대 교수)
- 2 해외명사 초청강연회  
(2010. 03. 06) Why Russia is  
not a democracy - Peter  
Rutland (웨슬리안대 교수)



#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의학연구소 40년 주요 활동 자료



##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명칭	발행기간	발행주기	비고
슬라브研究	1982. 09 - 현재	연 1회 (- 1999) 연 2회 (2000 - 2010) 연 4회(2011 -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04년 12월 선정)
러시아 지역연구	1997. 08 - 1999. 08	연 1회	일반학술지(停刊)
月刊 카프카즈 저널	2004. 01 - 2005. 06	월 1회	e-journal(停刊)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	2005. 10 - 2006. 12	월 1회	e-journal(停刊)
Ukraine & Belarus	2007. 10 - 2009. 6	연 6회(격월)	e-journal(停刊)
Russia · CIS Focus	2009. 03 - 현재	주 1회	e-journal
Russia & Russian Federation	2010. 03 - 현재	연 4회	지역정보지
Russia Report	2011. 01 - 현재	연 1회	e-journal
리승도의 Russia Watch	2011. 09 - 현재	비정기	e-journal
Zoom In Russia's Power Elite 장세호의 러시아 엘리트 탐구	2011. 11 - 현재	비정기	e-journal



주요 정기간행물



슬라브研究(1982년 창간, 2010년 디자인 및 판형 혁신)

1982년 창간된 ‘슬라브研究’는 지난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슬라브학 및 러시아·CIS지역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창간호-15호(1982-1999)는 연 1회, 16-26호(2000-2010)는 연 2회 발간되었으며, 27호(2011)부터는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권/호수	발행 시기	게재 논문	저자
창간호	1982	發刊辭	所長
		第2次世界大戰期の 폴란드問題	李 徹
		Акакий Акакиевич в сравнении Поприщина	Hak-Soo Kim
		쏘비에트 文學의 理論과 實在	李鍾鎭
		러시아의 모더니즘 속의 象徵主義	章 実
		Analyse des Aufbaus des tschechischen Dramas "R. U. R." von Karel Čapek	Hung-Zuh Kang
2	1984	「이고르」의 출정기(Slovo o Polku Igoreve) - Zadoň na와 비교연구	金敬旭
		發刊辭	所長
		쏘비에트 文學의 “鄉里小說”을 통해 본 러시아의 農民像	曹圭化
		Geistiger Widerstand in Werke von A. Solženicyn 'Ein Tag im Leben des Ivan Denisovi '	Hung-Zuh Kang
		러시아 農民共同體의 歷史的 意味	李 徹
		古代 노어의 音聲學 연구 - 10c~13c 中心으로	金敬旭
		도스또예프스키 연구의 현황	李鍾鎭
		러시아 最初支配權力의 形成과 그 性格	奇連洙
3	1987	東歐圈에서의 反體制運動과 政治發展	金洙喜
		특집: 최근 蘇聯정치·사회 동향에 관한 研究	
		蘇聯權力의 構造的 特徵	曹圭化
		소련의 政策決定過程	董 玩
		蘇聯外交政策의 展開	奇連洙
		소련의 經濟的 要因에 의한 對内外政策  전망	金洙喜
		革命後 蘇聯社會의 變化	姜興周
		소련의 文化政策과 이데올로기	金鶴秀
		소련의 人權問題와 反體制運動	李 徹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理論과 實際	李鍾鎭
		소비에트 테러수단의 變遷史 研究(II) Cheka에서 K. G. B. 前까지의 秘密警察力을 중심으로	章 実
		蘇聯·東歐의  경제환경변화와 韓國의  진출방안 研究	李基榮
Принципы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произношению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P. И. Гоздик		



4	1988	특집: 蘇聯 諸政策의 持續과 變化(I)	
		볼셰비즘의 러시아적 起源	奇連洙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이데올로기	金洙喜
		고르바초프 体制와 權力엘리트	安秉萬
		소련의 經濟改革에 관한 연구	徐在明
		소련의 經濟成長戰略에 관한 연구	吳寬治
		소련의 經濟運營機構의 변화	韓弘淳
		소비에트文化의 根本理念과 政策	李 徹
		소비에트市民의 社會意識構造	董 玩
		프라하學派의 문학이론가 안·무까르좁스끼의 構造主義 小考	권재일
		New Economic Trends in Socialist Countries	Wladimir Andreff
		동서관계의 현재와 미래: 헝가리의 입장	예뇌 하모리
러시아 데카당 브류소프의 뿌쉬킨 참모습 추구	조안 D. 그로스만		
5	1989	특집: 蘇聯 諸政策의 持續과 變化(II)	
		蘇聯共産黨과 政策決定	安秉萬
		소련의 改革政策과 國家機構의 위상	金雄鎮
		소련의 勞動組合과 政策參與	奇連洙
		소련의 勞動組合의 역할	韓弘淳
		소련의 産業化過程과 企業	徐在明
		소련의 農業集團化	吳寬治
		소련의 文化政策 변화	李鍾鎮
		소련의 現행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고찰	姜興周
		제까브리스트 反亂과 제까브리스트 文學 小考	金圭鎮
		自然學派와 1840年代 러시아 리얼리즘	李佶周
6	1990	특집: 蘇聯 諸政策의 持續과 變化(III)	
		소련 外交政策의 持續과 變化	奇連洙
		中蘇關係 정상화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	崔寬藏
		冷戰終息과 新國際体制: 한반도의 미래	梁東柱
		소련의 對先進國 貿易政策	吳寬治
		소련의 對開發途上國 貿易	韓弘淳
		소련과 동구 社會主義 국가간의 貿易商品 구조분석	李基榮
		소련 文化政策의 現代的 좌표	章 実

6	1990	소련의 教育制度和 改革展望	金敬旭		
		A.H. 라지시체프의 思想과 哲學	李佶周		
		소련의 膨脹主義와 民族主義	朴太星		
7	1991	특집: 韓蘇關係의 現實과 展望(I)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 變遷	李政熙		
		東北아시아의 環境과 韓半島	盧承禹		
		Политика СССР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в период перестройки	Алексей Шин		
		소련 對外貿易의 性格變化와 韓蘇貿易	鄭一溶		
		소련의 貿易制度和 韓蘇貿易	韓弘淳		
		소련의 經濟改革과 韓蘇貿易	徐在明		
		구한말 韓蘇關係史	朴太星		
		韓國人的 러시아 移民史	李 徹		
		8	1992	특집: 韓·러관계의 現實과 展望(II)	
러시아의 外交政策 전망과 한반도	奇連洙				
소련 社會主義 해체이후 중국의 反和平演變政策과 한반도	崔寬藏				
舊소련의 對美정책과 한반도	朴太星				
舊소련의 産業構造와 한·러무역	金洙喜				
舊소련 經濟體制의 변천과 한·러무역	韓鍾萬				
소련방 해체와 韓-CIS국가간 交易增進 방안	劉丙鎬				
러시아의 對韓인식: 남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李 徹				
在蘇韓人的 한국어 교육문제	林興洙				
Education, Languages, and Culture in the Soviet Union Today	V. G. Kostomarov				
"Новые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страны" и пути развития бывшего СССР	Ирина Алексеевна Шин				
Русский язык наших дней - взгляд со стороны	Р. И. Гоздзик				
9	1993			특집: 韓·러관계의 現實과 展望(III)	
				獨立國家聯合의 實際와 韓國의 對應	奇連洙
		韓國과 러시아의 關係 展望	金德重		
		한국과 러시아간의 효과적 기술교류에 관한 연구	李明湖		
		러시아의 市場經濟로의 이행과 韓·러간의 資本協力	朴濟勳		
		러시아의 資源開發에 對한 韓國의 參與展望	朴龍錫		
		구 소련내의 민족 갈등 문제	李 徹		



9	1993	大審問官研究: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李鍾鎭
		『연기』와 『여름인상에 관한 겨울수기』에 나타난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 사상	桂東浚
10	1994	<b>특집: 러시아 정교(I)</b>	
		교회슬라브어의 역사와 특성	姜德洙
		끼에프時代의 敎會와 國家	奇連洙
		正敎會와 토착신앙	李 徹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교회와 국가의 관계	林永尙
		러시아 정교와 중세러시아 문학	章 實
		帝政 러시아의 학교교육 유산: 1910년대 자유교육론과 초등교육의 양상을 중심으로	朴太星
		러시아 모더니즘 연구: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李鍾鎭
		숙신 단편의 갈등 구조	洪尙佑
		독립국가연합의 경제관계 및 전망	洪成源
Studien zu Boris Pil'njaks Krasnoe derevo	尹宇燮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Far East from 1948 to 1950 and the Korean War	曹圭化		
11	1995	<b>특집: 러시아 정교(II)</b>	
		16-17세기 러시아 정교와 문학	강흥주
		정교신앙과 농민공동체	이종진
		<모스끄바-제3로마>論 연구	기연수
		니콘의 교회 개혁과 구교도의 출현	김경욱
		뽀뜨르 대제의 교회개혁	김현택
		정교회의 개혁운동	윤우섭
		러시아 이콘 연구	이덕형
		소연방체제의 붕괴원인에 대한 이론적 모색	이흥섭
		소비에트體制의 産業化와 正當性 危機	김형주
On the Devices of Dehumanizing Characters in Gogol's Works	조주관		
Поэтическая и философская разработка проблемы Восток-Запад-Россия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и историко-религиозных работах Вл. Соловьева	홍기순		
12	1996	<b>특집: 러시아 정교(III)</b>	
		슬라브주의와 정교사상	기연수

12	1996	18~19세기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적 전통	장 실
		구소련과 러시아 정교	김수희
		정교회와 反體制 및 民族主義 운동	김근식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	김현택
		러시아 정교회와 한국: 서울 선교부의 설립과정과 초기활동	임영상
		러시아 정교회의 세속교육	박태성
		F. M.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현대적 의미	이 철
		동서 문화의 대화: 러시아문학의 수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이종진
		CIS 경제동맹 형성전망	홍성원
		Интуитивистическая теория познания Н. О. Лосского	정연욱
		구 소련에서의 종교 문제와 민족 문제	김문황
		혁명기 러시아의 민속문화 연구: 새로운 변화와 그 양식들을 중심으로	김상현
Два великих поэта: Шевченко-великий поэт Украины, а Юн Донг Джу-поэт Кореи	김석원		
Внутреннее родство Мастера и Иешуа Га-Ноцри в романе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정막래		
13	1997	<b>특집: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I</b>	
		신화와 전설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세계관	이 철
		러시아 문화의 지리적 전통	이정만
		종교축일과 민속명절에 나타난 러시아적 삶의 특징	임영상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김우승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김현택
		文學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民族性과 意識構造	이종진
		뽀뜨르 대제의 개혁에 따른 러시아 문화의 변화	박태성
		Проблема субстантивации русского причастия в структурно-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лане	유학수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кореизмов в русском тексте (на материале "Описания Кореи", в 3-х томах, Спб., 1900)	한만춘
		О символике цвета и числа в повести М. Булгакова "Дьяволиада"	김수창
		Проблематика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в творчестве Андрея Белого	홍기순
Шевченко и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Шевченко и Юн Донг Джу	김석원		





17-1	2001. 06	현대 러시아문학의 흐름	홍상우
		현대 러시아어 관용구의 變異形 研究	성종환
		슬라브 문자의 기원	어건주
17-2	2001. 12	Пост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проблема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родов в преломл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Николай Н. Бугай
		우크라이나의 민족문제와 러시아	문명식
		러시아 개혁에 대한 복잡체계론적 이해	권세은
		세시 풍속 안에서 남성과 여성 참석자의 性的 상징과 기능: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농촌을 중심으로	이건욱
		한스 나우만의 문화이론과 소비에트의 민속학	홍성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이 음식문화에 미친 영향	조성현
		러시아 문학과 민족의식	권철근
		뿌쉬킨의 <청동 기사> 연구사 고찰: 연구 관점에 따른 작품 해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행규
		체홉의 단편 <룻실드의 바이얼린> 분석: 구조, 주인공의 형상, 주제를 중심으로	장 한
		노어 지소체 명사 연구: 조어적, 어휘의미적 관점에서 노어 지소체명사 분석	표상용
		Особенности рус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Ки Ён Су
		18-1	2002. 06
탈냉전시대 한국의 대러 정책에 관한 일 고찰: 과정·평가·과제	홍완석		
러시아 주지사의 권한확대와 민주개혁	정옥경		
코민포름 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김철민		
『고요한 돈강』에 나타난 솔로호프의 역사관	문석우		
구 소련 중앙아시아 구비 영웅서사시 '마나스' 연구 서설	양민중		
《지간까 근교 마을의 야회》에 나타난 Н.В. 고골의 민족성(народность) 연구	최행규		
노-한 자동번역 시스템의 변환과정 연구	강덕수		
Russia and the Great Powers in the Far East, 1855-1914	Kim, Seung-Hwan		
И.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Судьба и судьба идей	Ю Хак Су		
Системное изучение лекс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снятие лекс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при изучении темы «Имя человека»	Кулькова Р.А, ХанМанЧун		



18-2	2002. 12	페테르부르크 역사학파의 성립과 발전	조호연
		러시아 민간신앙 연구: 기독교 수용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황영삼
		"감자폭동(kartofel'nye bunty)": 반봉건적 투쟁인가? 문명충돌인가?	이규식
		러시아 연방제 안정화의 근원적 제약요인 분석: 미·영 연방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황오연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역할	박윤형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정책	최태강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안모색: 동북아물류중심지로서의 하산경제특구기능성을 중심으로	조원호
		<악령>에 나타난 스태브로긴의 실험과 오만	권철근
		유리 올레샤의 <준엄한 젊은이> 영상화 연구	김성일
		'해빙기' 예술관의 변화	이혜승
		이오시프 브로츠끼의 시 텍스트에 나타난 "말과 사물"의 형이상학	한정수
		분리 가능 소유의 의미를 갖는 생격 명사구와 여격 명사구 비교	양창렬
19-1	2003. 06	Искусств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и метод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ок	Пан Ге Ен
		뽀뜨르大帝의 改革에 관한 考察: 개혁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기연수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성종환
		러시아사회의 신뢰와 불신	최태강
		혁명과 내전 사이의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정치(1917-1920)	최대희
		Ура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отёмкина М.Н.
		러시아의 제2차 체첸침공과 민군관계	서춘식
		종교와 음식: 러시아 음식과 민간신앙 - 기독교 수용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황성우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남·북·러 경제협력방안: 철도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종만 김상원
		유고슬라비아 문헌을 통해 바라본 한국전쟁	김철민
		도스토예프스끼의 작품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인간상	이종진
		『보리스 고두노프』에 나타난 뿌쉬킨의 역사관	이영범
이반 부닌의 문학비평과 『톨스토이의 해방』	이희원		
19-2	2003. 12	정치문화 전통으로 본 러시아 과도기 정치문화	신범식

19 -2	2003. 12	Исторические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сюжеты 300-лети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ладимир Ф. Ли
		알렉산드르 I 세 치세 초기의 세나트(Сенат) 개혁에 대한 재해석	오두영
		러일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인식: 러시아 중등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최덕규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와 기업소유 및 지배구조변화: 러시아, 체코, 폴란드 비교	이상준
		체코슬로바키아 정당체계의 형성과 특성 연구: 1990년 토대선거를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김신규
		뿌슈킨의 『작은 비극들』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일고(一考)	홍대화
		또까레바의 단편에 나타난 여성상: 주체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	이은경
		스탈린 체제의 환상성과 풍자의 서사전략: 보이노비치의 『이반 촌긴』을 중심으로	안동진
		러시아어 검정시험(FLEX) 문항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	김현택
		번역수주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방법론 연구: 한노·노한 번역을 중심으로	방교영
20 -1	2004. 06	러시아 대중매체 언어의 특성: 사회언어학적 분석	이명자
		러시아어 -ovat' 동사의 상범주 연구	표상용
		상트-페테르부르크로의 천도(遷都) 논의의 현황과 배경, 그리고 전망	기연수
		상트 페테르부르크 창건 300주년이 주는 역사적, 정치적 함의: 표트르 대제와 푸틴과의 유비(類比)	김현택
		선거에 투영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정치성향 연구: 국가두마 선거(1993, 1995, 1999년)를 중심으로	홍완석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황영삼
		Медиасистем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 Москва - два полюса од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дгорная Л. Д.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부패현상: 현황과 전망	우준모
		2003년 12월 러시아 두마(하원)선거 분석	최태강
		북카프카즈 '와합주의 문제'의 기원	현승수
20 -1	2004. 06	복잡시스템에 기초한 지방경제의 분석모델 연구: 러시아 7개 연방지구의 예시	김성훈
		러시아의 지역문화 연구방법론 고찰: 로트만 이론을 중심으로	공영호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역사와 문제점: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김상철

20 -1	2004. 06	러시아 영재교육의 변화와 실상	박태성
		슬로베니아의 EU가입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망	김철민
		끼예프 브릴리나의 신화적 탐색과 서사 구조	문석우
		М.Ю. 레르몬토프의 동양적 서사시 『이즈마일-베이(Измаил-Бей)』에 대한 - 考	홍기순
		Природ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с позиций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Дрёмов А.Ф.
20 -2	2004. 12	О менталитет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유시나
		현대러시아 연방체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박정호
		푸틴의 러시아외교와 對동북아관계	연현식
		상트 페테르부르크 경제모델 연구: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김상원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역할	홍성원
		시베리아 지역주의(Областничество) 운동의 사상적 기원: 뽀따닌과 아드린제프를 중심으로	민경현
		발트 삼국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	유의정
		구소련과 헝가리의 집단생산체제의 비교(1917-1980): 꿀호즈와 농업생산조합을 중심으로	장은주
		안나 아흐마토프: 아그메이즘의 미학의 원칙과 그 극복	공영호
		《미성년》에 나타난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론: '이울배반적 광범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권철근
		고골의 『넵스끼 대로』에 나타난 환유와 환상	김성일
		『죄와 벌』의 공간 구조	백준현
		부리야트 신전(판테온) 구성모델을 통한 시베리아샤머니즘연구의 새로운 방향성모색	양민중
		포스트 소비에트 여성문학에 나타난 문화적 '신경증' 고찰	이수연
		Н. А. 네끄라스프의 서정시에 나타난 '타자(他者)의 말'	조준래
로만 야콥슨 제이론의 러시아 언어학적 수용양상 연구	표상용		
[연구서평] A Preliminary Research Note on Wedding Rituals and Laments of the Northern European Russians	Kim, Sang-Hyun		
21 -1	2005. 06	Исторический выбор России: православие	Л.Ю. Юшина
		제정 러시아 말기의 Pan-Asianism: 일방성과 다자성의 규명을 중심으로	정희석
		고르바초프의 改革에 관한 考察: 개혁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기연수



22 -2	2006. 12	19세기 후반 개혁기 러시아 언론의 신경향: 잡지 『니바』(Нива)를 중심으로	김용환
		러시아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자카프카지예: 자카프카지예의 발전과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박태성
		러시아 시스템학의 연구경향	권세은
		공간의 문화정치학: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모스크바 재건의 문화적 함의	라승도
		화자와 작가의 충돌: 『카자크 사람들』에 나타난 낭만화와 탈낭만화	권철근
		상처와 응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아스파피에프의 『물고기대왕』	박영은
		문학작품의 영화화: 문학언어에서 영화언어로의 번역과 공존의 가능성	강수경
		푸틴 정치담화의 행위소 구조분석 통번역사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방교영
		러시아어 명사구 위치에서 부정사절의 제약	추석훈
		러시아어 신조동사에서 접두사 на-, от-, о(об-)-, под-, по-의 완료상화 연구	표상용
		Понятие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формы языкового строя в практ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Дрёмов А. Ф.
23 -1	2007. 06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민족정책을 중심으로	서규환, 이완중
		О некоторых «словесных памятниках» Смутного времени: историческ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как «словесные памятники»	Юшина Л. Ю.
		뽀뜨르大帝의 改革과 볼셰비끼革命의 比較研究	기연수
		우크라이나 재발견: 한국에 주는 다중적 함의와 정책방향	홍완석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남 카프카스를 중심으로	김선래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안보와 외국인투자 분석	이종문
		민속텍스트에 나타난 러시아 전통혼례	이명자
		발레리아 나르비꼬바(Валерия Нарбикова) 문체 연구	홍정현
23 -2	2007. 12	러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 연구	조원호
		러시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대한 소고(溯考)	양정훈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박태성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전방위 외교정책'의 모색	이홍섭
		한국전쟁을 통해 바라 본 유고슬라비아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소련, 친 서구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김철민

23 -2	2007. 12	살라모프의 『콜리마 이야기』(Колымские рассказы): "새로운 산문"의 탄생	김현택
		따짜야나 돌스따야의 『백지』: 인격(personality) 분석을 통한 작가의 '전망' 고찰	이수연
		『푸른 심연』의 풍경: 플라토노프의 시에 나타난 초월의 세계	라승도
		러시아어 사람 이름의 절단형 지소체 연구	표상용
		Verbal Categories of the Russian Participles	Choo, Suk-hoon
		러시아어 음절 내 자음과 모음의 상호작용: 전·후설 자질을 중심으로	김원희, 채유정, 김진실
		한국 국제간 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현황: 한국 통번역 연구의 경향성 조사(1996~2006)	방교영
24 -1	2008. 06	러시아 법치행정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박윤형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과 러시아 국부펀드의 창설: 신외교안보전략수단인가 아니면 세계화의 추세인가	김석환
		러시아 自由主義 研究: 그 淵源과 초기의 實際를 중심으로	기연수
		Миграционноцессы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Тихонов В. Г.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의 만남과 충돌(1909-1912): 최관흠과 장로교파의 극동지역 선교활동과 러시아 측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병조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 문화에 나타난 혼합적 종교성	홍석우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편입과정과 현재적 의미	박태성
		F. M. 도스토옌스끼의 필사본(筆寫本) 원고의 삽화(插畵) 분석	홍기순
		Сатирические комедии М. Булгакова «Зойкина квартира» и «Багровый остров» из наблюдений над сюжетно-образной структурой	Ан Бенён
		러시아어 학습을 위한 디지털 마인드맵의 활용	최행규
24 -2	2008. 12	러시아의 국민국가형성(Nation-State Building)과 전쟁: 동기, 동맹, 그리고 개혁	백준기
		푸틴시대 러시아 은행산업 구조조정과 성과 분석	이종문
		The Impact of World War II on the Formation of the Home-Front Identities	Joonseo Song
		유고슬라비아 왕국 하에서의 크로아티아(1929-1941): 남슬라브족 통일왕국 유지 vs 크로아티아 민족-국가 건설	김철민



26 -2	2010. 12	『소네츠카』의 서사구조와 고전(古典)의 귀환	김은희
		The Russian Counterpart to English Do-Support: A Sentence-Initial Marker	Choo Sukhoon
27 -1	2011. 03	포스트 크라이시스 세계와 한·러 경제협력	이상준
		러시아 이슬람의 지역 정체성과 이슬람 단체 특성 연구	정세진
		Who Rules Russia? The Power Elite of the Russian Federation	Chris Monday
		곰브로비치의 『트란스-아틀란틱』에 나타난 '정상'과 '자유'의 개념	정보라
		러시아어 억양구 연구	이명자
27 -2	2011. 06	유라시아 국가의 체제전환 불황과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연구	김영진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러 협력	홍완석
		«Мягкая сила» Кореи и Россия: попытка сравнения, уроки и выводы	Надежда Толорая
		『삶의 질, 책, 개작자, 소설』 고찰: 창작 모토에 관한 소설	이수연
		아르누보와 범슬라브주의의 문화적 조우: 알폰스 무하의 『슬라브 서사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최정현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어 확산 정책	남혜현
		슬라브어의 호칭 체계: 권력, 결속력, 거리감의 상관관계	정정원
		Устойчивые сравн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корейскими	Сон Ван Ким, Александра Кулик
		Структура языковой модели «этический норматив» в корей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на материале пословичных изречений с лексемой "밥")	Лариса Пан
27 -3	2011. 09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변화: 유셴코와 야누코비치 정권을 중심으로	박정호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 확대: '장기적 사회분쟁'의 관점에서	현승수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как функциональ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рина Коргун
		Nationality, Marxism, and the Intelligentsia: New Works by St. Petersburg Historians on St. Petersburg Intellectuals of Early Twentieth Century	Chris Monday

02 러시아 지역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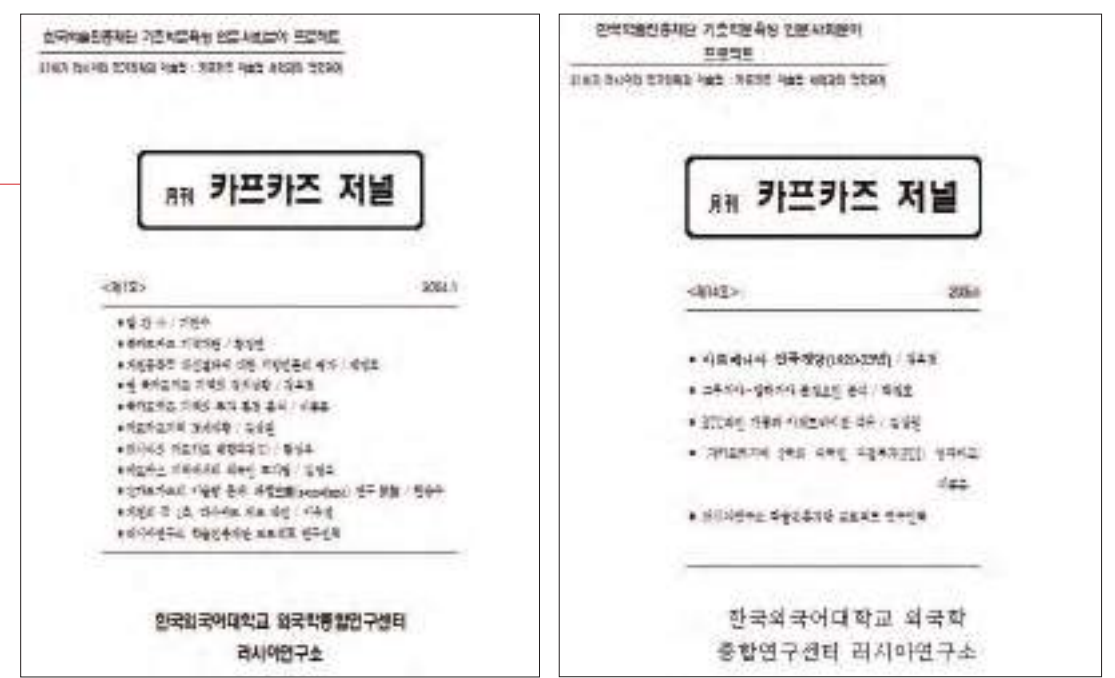
러시아 지역연구(1997-1999년 발간)

‘러시아 지역연구’는 1997년 8월 러시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이 때문에 ‘슬라브研究’와 달리 대학원 박사과정생 및 신진학자들의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다. 1999년까지 총 3호가 발간되었으며, 현재 정간된 상태이다.

권/호수	발행 시기	게재 논문	저자
창간호	1997. 8	시대상황의 변화와 러시아 지역연구의 재인식	김형주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적 속성에 관한 小考	우태현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우준모
		북코카서스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현승수
		러시아연방 공업구조의 변화	김학기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원유의 정치경제	홍성원
		러시아의 문화전통과 모스크바	이 철
		러시아 부르주아와 민주사회발전: 19세기와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정옥경
		공산주의 시기 러시아 정교회와 존속과 변화: 1917-1991	황영삼
		1904년에 개최된 “러시아 국가의 반대파 및 혁명조직들의 대회”에 대한 고찰	조호연

2	1998. 8	러시아의 1840년대 政治秩序 論爭과 現代의 意味: 차이다예프, 호마코프, 게르젠의 政治秩序觀을 중심으로	박윤형
		탈냉전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우준모
		전략적 동반자시대의 러-중관계	최태강
		亞·太지역에서 러시아 聯邦의 國家利益과 戰略	홍완석
		러시아의 지역별 대외경제성과 분석	이윤, 김선홍
		러시아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모델 연구	신영재
		유럽통합과 CIS: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윤
		소련 붕괴이후의 시베리아 지역문제에 대한 小考: <시베리아 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권성열
		러시아 마피아의 실태	신현우
		M. 코스토마로프와 우크라이나의 민족학	홍석우
러시아 기독교 수용의 의미	황성우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소련 관련 국내학위논문 제목			
3	1999. 8	<b>특집: 러시아와 CIS에서 한국학과 한국어 연구(I)</b>	
		러시아에서 한국학 연구의 역사와 현재 상황	김현택
		러시아에서의 한국학의 제 분야와 범위	권철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분석	임흥수
		중도노선「조국」 지도자 유리 루쉬코프: 대권장악 가능한가?	최태강
		러시아인과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	문명식
		러시아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내외적 정치환경	우준모, 유태수
		21세기 러·일 관계 발전 전망	홍완석
		러시아의 지성 문화	박윤형
		러시아 중앙집권화 과정과 기독교화	황성우
러시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보			

03 月刊 카프카즈 저널(e-journal)



月刊 카프카즈 저널(2004-2005년 발간)

국내 러시아·CIS 지역 연구기관 최초의 e-journal인 '月刊 카프카즈 저널'은 2003년 9월-2005년 8월 수행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이슬람: 카프카즈 이슬람세력과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물을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2004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5년 6월까지 총 14호를 발간했다.

호수	발행일자	주제	저자
1	2004. 01	북카프카즈 지역개관	황정연
		체첸공화국 대선결과에 대한 서방언론의 평가	박정호
		현 북카프카즈 지역의 정치상황	정옥경
		북카프카즈 지역의 투자 환경 분석	이종문
		카프카즈지역 경제개황	김상원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I)	황성우
		카프카즈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법	김영옥
		北카프카즈의 이슬람 문제: 와합主義(ваххабизм) 연구 試論	현승수
		체첸의 적 1호, 바사예프 체포 작전	이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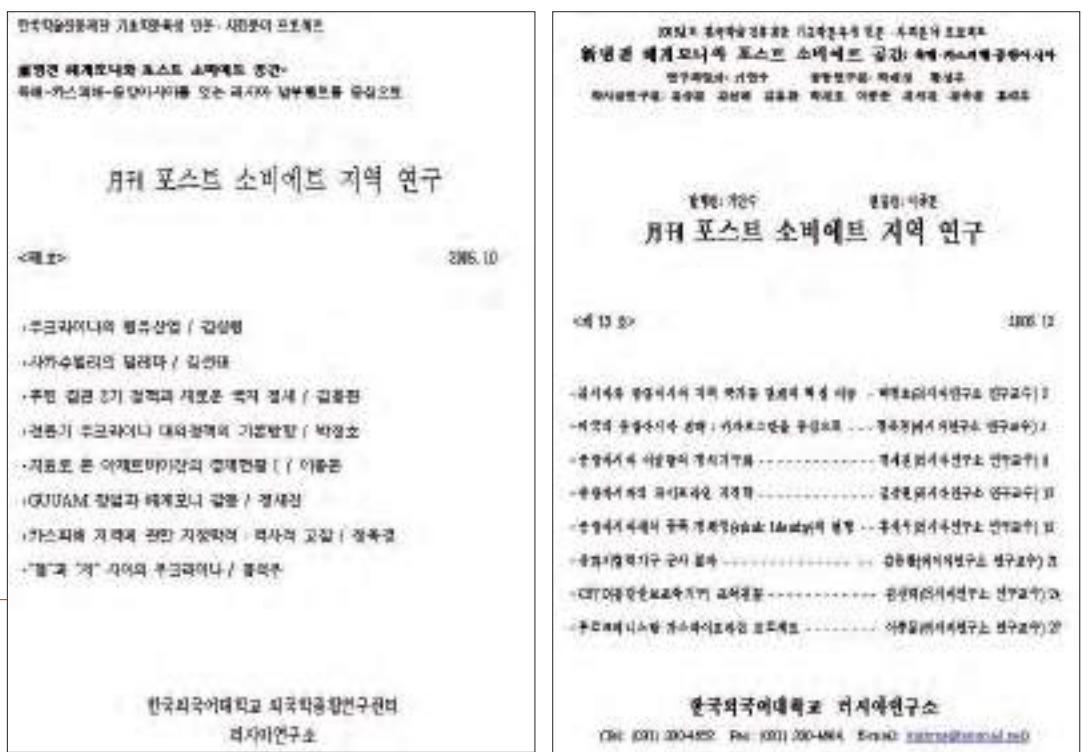


2	2004. 02	러시아 정치에서의 '체첸요인' 의미 분석	박정호
		다게스탄의 이슬람 정치	정옥경
		북 카프카즈 지역의 에너지 경제	김상원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투자 환경	이종문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II)	황성우
		북 카프카즈 지역현황	이유정
		러시아 석유산업 개황	정희영
		최근 코카서스 정세와 러시아의 대응	고재남
3	2004. 03	러시아 대선과 향후 체첸 정국 전망	박정호
		왜 다게스탄은 체첸과 다른가?	정옥경
		러시아의 파이프라인과 북카프카즈	김상원
		로스토프주의 투자 환경	이종문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III)	황성우
4	2004. 04	북카프카즈지역의 민족 갈등	이유정
		러시아 석유산업 현황	정희영
		카드이로프 암살이후 체첸 정국 전망	박정호
		다게스탄 공화국의 정치구조	정옥경
5	2004. 05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북카프카즈	김상원
		스타브로폴지방의 외국인 투자	이종문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IV)	황성우
		다게스탄공화국: 통합 유지로의 길	이유정
		러시아의 천연가스	김용재
		체첸 공화국의 경제 환경	최원보
		체첸 정상화를 위한 푸틴정부의 전략적 선택방향	박정호
6	2004. 06	다게스탄의 역사적 운명과 러시아	정옥경
		북 카프카즈 지역의 외국인 투자	이종문
		다게스탄 공화국 경제 현황	김상원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V)	황성우
6	2004. 06	체첸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자카프카즈의 의미	이유정
		크레믈린의 신 체첸정상화 프로젝트	박정호
		소연방 해체 이후 카프카즈에서 이슬람 민족주의: 다게스탄을 중심으로	정옥경
		아디게야 공화국 경제현황	김상원
6	2004. 06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경제 개황	이종문

6	2004. 06	19C 체첸인들이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황성우
		체첸-러시아 분쟁의 역사 I	이유정
		러시아 석유 가스 산업의 문제점	김용재
		러시아 석유 및 가스산업의 현황과 전망	최원보
		러시아 역사속의 카프카즈	황정연
7	2004. 07	8월 29일 체첸 대선 전망	황성우
		알루 알하노프정권과 체첸정국 정상화 전망	박정호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지정학적 역할	김상원
		스타브로폴지방의 산업 현황	이종문
		체첸 - 러시아 분쟁의 역사 2	이유정
8, 9	2004. 09	북카프카즈의 "지하경제"	김용재
		자카프카지에 지역분쟁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 그루지야와 압하지야 분쟁을 중심으로 -	박정호
		이슬람 세계는 개혁되는가, 붕괴되는가?	정옥경
		카스피해 석유자원과 러시아	김상원
10	2004. 10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경제 현황	이종문
		남 오세티야 분쟁과 러시아	이유정
		현대 카프카즈의 지정학적 문제점	김용재
		러시아 국가전략과 카프카즈 지정학	박정호
10	2004. 10	푸틴의 카스피해 에너지 외교	정옥경
		아제르바이잔과 석유자원	김상원
		아제르바이잔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이종문
		그루지야의 대 오세티야 전략	이유정
11	2004. 11	카스피해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러시아	김용재
		러시아와 그루지야 동맹관계: 1921년과 1994년	정옥경
		역사적 측면에서 본 그루지야와 압하지야 갈등	박정호
		아제르바이잔 석유개발 역사	김상원
11	2004. 11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산업 현황	이종문
		그루지야의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의 위기	이유정
		자원운송의 요충지 카프카즈	김용재
		아제르바이잔 현대정치에서 이슬람의 역할	정옥경
12	2005. 02	아제르바이잔 석유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김상원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분쟁: 그루지야와 압하지야 분쟁을 중심으로	박정호

12	2005. 02	아르메니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이종문
		러시아-그루지야 관계 개선의 어려움	이유정
		그루지야의 조직범죄	김용재
13	2005. 05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 선거	정옥경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분쟁 2: 그루지야-압하지야 분쟁을 중심으로	박정호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수출	김상원W
		자카프카지예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이종문
14	2005. 06	아르메니아 민족정당(1920-23년)	정옥경
		그루지야-압하지야 분쟁요인 분석	박정호
		BTC라인 개통과 아제르바이잔 석유	김상원
		자카프카지예 3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성과 비교	이종문

04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e-journal)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2005-2006년 발간)

‘月刊 카프카즈 저널’의 후속 e-journal인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는 2005년 9월-2007년 8월 수행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신냉전 헤게모니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물을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2005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총 13호를 발간했다.

호수	발행일자	주제	저자
1	2005. 10	우크라이나의 원유산업	김상원
		사카슈빌리의 딜레마	김선래
		푸틴 집권 2기 정책과 새로운 국제 정세	김용환
		전환기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러시아와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박정호
		지표로 본 아제르바이잔의 경제현황 I	이종문
		GUUAM 창설과 헤게모니 갈등	정세진
		카스피해 지역에 관한 지정학적·역사적 고찰	정옥경
		“동”과 “서” 사이의 우크라이나	홍석우



10	2006. 08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NATO 가입 문제를 둘러싼 제약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박정호
		우크라이나의 정치체제 변혁에 관한 재논쟁	정옥경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기업	김상원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의 재정립	홍석우
		러시아 군사안보전략	김용환
		구암: 과정과 모험, 그리고 그 전망	정세진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안보	이종문
		러시아의 카프카스정책 실패와 아르메니아의 탈러현상	김선래
11	2006. 10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러시아적 특징	정세진
		중앙아시아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	홍석우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총리 정례회의	김용환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하여	정옥경
		카자흐스탄의 석유	김상원
		투르크메니스탄 개황(I)	이종문
		키르기스스탄 개관	김선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새로운 에너지 변수	박정호
12	2006. 11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외교정책 목표	박정호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치화	정세진
		중앙아시아의 분쟁 요인들	홍석우
		CSTO 민스크 정상회담과 NATO	김선래
		상하이 협력기구	김용환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정치	정옥경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김상원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잠재력	이종문
13	2006. 1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관계의 핵심 이슈	박정호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정옥경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정치기구화	정세진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지정학	김상원
		중앙아시아에서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의 변형	홍석우
		상하이협력기구 군사 분야	김용환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조약전문	김선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이종문

05 Ukraine & Belarus(e-journal)



Ukraine & Belarus(2007-2009년 발간)

‘月刊 카프카스 저널’과 ‘月刊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연구’에 뒤이은 후속 e-journal인 ‘Ukraine & Belarus’는 2007년 9월-2009년 8월 수행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과제 “동’과 ‘서’ 사이에서: 슬라브 형제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연구결과물을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2007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12호를 발간했다. ‘Ukraine & Belarus’는 기존의 흑백 2색/hwp 형식에서 벗어나 올컬러/pdf파일로 제작하여 배포되었다.

호수	발행일자	주제	저자
1	2007. 10. 08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의회내 정파들의 이념적 정향분석: EU 및 NATO가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박정호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함의	홍완석
		연구논문 유센코 정권의 개방화 전략과 투자 동향 변화	윤성학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의 문화적 토대	홍석우
2	2007. 12. 08	초청논단 동슬라브 3국의 역사적 분화와 결합	한정숙

2	2007. 12. 08	연구논문 2007년 우크라이나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정국 전망	박정호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탈러 노선과 유라시아 정치경제 안보질서	홍완석
		연구논문 기रो에선 우크라이나 철강산업 연구	윤성학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정치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홍석우
3	2008. 02. 08	연구논문 쿠츠마시기 우크라이나 안보정책	박정호
		연구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역사적 전개	홍완석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환경과 투자리스크 연구	윤성학
		연구논문 정치적 풍자와 농담: 우크라이나 사회문화현상의 메타포	홍석우
4	2008. 04. 08	연구논문 동과 서 사이의 우크라이나: 2007년 총선의 특징과 대외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박정호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재발견: 한국에 주는 다중적 함의와 정책방향	홍완석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경제개발과 경제성장	윤성학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역사의 재정립	홍석우
5	2008. 06. 08	연구논문 쿠츠마 시기 우크라이나의 정치 환경: 오렌지 혁명 발생의 대내적 요인 분석	박정호
		연구논문 유럽통합의 속제,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제약성, 기회, 전망	홍완석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대중양아시아 가스협력사업의 전망	윤성학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축일과 기념일: 국가건설의 측면에서	홍석우
6	2008. 08. 08	초청논단 일본의 우크라이나 연구	후지모리 신키치
		연구논문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의 변화와 도전	박정호

6	2008. 08. 08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대EU 외교정책	홍완석
		연구논문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전망	윤성학
		연구논문 기독교 수용 1020주년 행사에 나타난 종교와 정치적 갈등	홍석우
7	2008. 10. 08	초청논단 벨라루시의 진로·유럽이나 러시아나	김석환
		초청논단 Westernization of Ukrainian Culture	Viktor Pylypenko
		연구논문 동과 서 사이에서: 포스트소비에트 벨라루시의 국가발전전략	박정호
		연구논문 벨라루시 경제구조의 특징과 성장 전망	윤성학
		연구논문 대조국전쟁과 현대 벨라루시의 민족정체성	홍석우
8	2008. 12. 08	대학원생 논문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에 관한 연구	박한나
		초청논단 더 광범위한 유럽?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인들의 시각	송준서
		초청논단 우크라이나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윤성학
		초청논단 Practical transcription of Korean names in Ukrainian	Olena Shchegel
		연구논문 벨라루시 국가건설전략과 민족정체성	박정호
		연구논문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윤성학
		연구논문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벨라루시 정체성	홍석우
		대학원생 논문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에 관한 연구	이지아
9	2009. 02. 08	초청논단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제약성	홍완석
		초청논단 동슬라브인의 축제적 시공간	이명재





8	2009. 05. 25	다큐멘터리 필름 <소비에트 이야기>와 러시아의 과거청산 문제 송준서(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9	2009. 06. 01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러시아의 딜레마 홍완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 교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10	2009. 06. 08	어느 체첸전사의 죽음 정세진(한양대 HK 연구교수)
11	2009. 06. 15	유가가 오른다고 러시아 경제가 살아날까? 오영일(한국투자증권 CIS. 동유럽 팀장)
12	2009. 06. 22	러시아 부동산 가격, 바닥을 쳤는가? 김진만((주) IPS 컨소시움 대표이사)
13	2009. 06. 29	SCO·BRICs 연계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열린 까닭은? 고재남(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4	2009. 07. 06	러시아 경제, 왜 이렇게 비틀거리나? -러시아의 금융위기 극복노력과 전망 - 한남주(외환은행 재무기획부)
15	2009. 07. 13	미·러 창과 방패(矛盾)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다 -미·러 전략무기감축 협상에 대한 일고(一考)- 강봉구(한양대 HK 연구교수)
16	2009. 07. 20	잠에서 깨어나는 붉은 군대의 후예들 심경욱(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7	2009. 07. 27	미래의 식량기지 우즈베키스탄 이상덕(농업진흥청 국외농업기술팀 농업연구사)
18	2009. 08. 03	러시아 군 개혁의 명(明)과 암(暗) 김규철(국방정보본부)
19	2009. 08. 10	유럽 Gas Pipeline - 그 절박한 서바이벌 게임 -러시아의 Nord Stream과 EU의 Nabucco 경쟁- 김상원(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	2009. 08. 17	푸틴의 절대권력, 2024년까지 유지될까? -메드베데프와 푸틴의 이중권력, 그 실제와 미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1	2009. 08. 24	러시아 현지조사의 중요성 현지조사: 전통과 실제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 김상현(한양대 HK 연구교수)
22	2009. 08. 31	러시아의 인구감소 위기와 이주정책 김성진(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3	2009. 09. 07	나로호 발사를 통해 본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미래 송용원(한국산업기술대 교수, 한·러 산업기술협력센터장)

24	2009. 09. 14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의 세가지 관전 포인트 박정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5	2009. 09. 21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보기 홍상우(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26	2009. 09. 28	트로이 보물의 소유권은 러시아의 것인가? 정옥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27	2009. 10. 05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방문기 조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28	2009. 10. 12	EU-러시아 에너지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김연구(한양대 국제학부 조교수)
29	2009. 10. 19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이상준(국민대 국제학부 부교수)
30	2009. 10. 26	신(神)의 '불꽃놀이', 러시아의 우주과학기술 현황과 저력 박종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초빙교수)
31	2009. 11. 02	'인적 지하자원' CIS 도착 고려인 동포들 황영삼(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32	2009. 11. 09	연구대상으로서의 러시아, 역사 공부의 중요성: 역사는 국가의 문화적 유전자(Cultural Genome)이다. 황성우(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33	2009. 11. 16	녹색 실크로드의 중심지 연해주 강명구(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4	2009. 11. 23	러시아 레드 마피아의 대부 아폰치크의 암살: 암흑가의 세력투쟁인가?, 권력기관의 토사구팽인가? 김선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35	2009. 11. 30	러시아 혁명, 그 빛바랜 페이지 속의 기억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나" 문준일(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36	2009. 12. 07	아쉬운 한-러 군사외교 이홍섭(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37	2009. 12. 14	러시아 경제의 대동맥, "Sabsan" 고속철도의 비상(飛上)!! 박은경(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팀 과장)
38	2009. 12. 21	소비에트 노스텔지어 이문영(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39	2009. 12. 28	한-러 협력증진과 우호를 위한 제언 김형주(동서대 객원교수)
40	2010. 01. 04	2010년 한-러 대화 출범: 배경, 역할, 의미 김진원(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KRD 사무국장)



41	2010. 01. 11	러시아는 건설중: 21세기 러시아의 건축 프로젝트 이지연(한양대 HK 연구교수)
42	2010. 01. 18	바다 영웅 신화의 영화정치학 I -강력한 러시아 남성 창조의 의미론- 이희원(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43	2010. 01. 25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2010년의 선택 홍석우(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44	2010. 02. 01	바다 영웅 신화의 영화정치학 II -현대 러시아 영화 <제독>, <72미터>의 기호의미론 - 이희원(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45	2010. 02. 08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축복'인가 '저주'인가? -자원지대(資源地代)와 지배동맹의 정치경제 - 김태환(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연구실장)
46	2010. 02. 15	이명박 대통령과 푸쉬킨, 그리고 칼미크 권기배(충북대 연구교수)
47	2010. 02. 22	2009년 인터넷으로 읽은 대~한민국의 도스토예프스키 박영은(한양대 HK 연구교수)
48	2010. 03. 01	러시아 '스바트키' 신년 점치기 이영범(청주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49	2010. 03. 08	우크라이나의 새 출발과 진로 박노벽(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50	2010. 03. 15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러시아 변현섭(롯데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51	2010. 03. 22	아제르바이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현황 한국의 참여 가능성 이용권(에너지경제연구원)
52	2010. 03. 29	우크라이나 아누코비치 신 정권의 외교적 좌표는?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
53	2010. 04. 05	러시아식 사회적 자본: 부패와 신뢰 - 뇌물과 선물 사이 김우승(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54	2010. 04. 12	러시아의 인구학적 위기, 사실상 지금부터 본격화 최우익(국민대)
55	2010. 04. 19	러시아 음식으로 다가서 보기 김근식(중앙대학교 노어과 교수)

56	2010. 04. 26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3국간 관세동맹의 정치경제적 의미 김영진(한양대 HK 연구교수)
57	2010. 05. 03	카프카즈의 유대인,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김혜진(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58	2010. 05. 10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입장은? 김규철(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59	2010. 05. 17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영향 김학기(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60	2010. 05. 24	2010년 한-러 문화 축제 방향과 미래 전망 함영준(단국대 교수)
61	2010. 05. 31	Donde Voy(어디로 가야하나요), 무국적 고려인 이채문(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62	2010. 06. 07	러시아연방의 국가이미지 提高에 대한 思惟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63	2010. 06. 14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천안함 외교 김석환(주성대 부총장, 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64	2010. 06. 21	소생한 축복의 통로 '북극권' 한종만(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65	2010. 06. 28	러시아와 미국의 따뜻한 두 남자 이야기 방교영(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주임교수)
66	2010. 07. 05	문화 패러다임과 소비에트 작가 김준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67	2010. 07. 12	칼레스니코프 대위는 편지를 쓰네 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68	2010. 07. 19	ESPO 원유 등장으로 아시아 원유공동시장 가시화 이성규(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9	2010. 07. 26	유라시아 대륙에서 펼쳐지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장덕준(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70	2010. 08. 02	<러시아88>: 영화 속의 스킨헤드 김수환(한국외대 노어과 조교수)
71	2010. 08. 09	러시아와 벨라루스, 4일간의 천연가스 분쟁의 진실은 무엇인가? 조원호(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72	2010. 08. 16	러시아 자원 기업과 러시아 자본주의의 운명 김계환(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73	2010. 08. 23	우크라이나,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가입할까? 박종관(크라노아르스크 국립사범대 역사학부 정치학과 부교수)
74	2010. 08. 30	러시아 볼쇼이 발레 <스파르타쿠스>: 정치적 선전과 자유로운 표현의 역학관계 이은경(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75	2010. 09. 06	NATO와 러시아: 공동의 안보위협과 대응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76	2010. 09. 13	러시아가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이대통령을 초대한 배경은? 홍완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77	2010. 09. 20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여인곤(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78	2010. 09. 27	강한 국가와 러시아 대통령제에 대한 小考 박수현(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79	2010. 10. 04	한-러 修交 20년 斷想 이규형(前 駐러시아 大使, 前 외교통상부 제2차관)
80	2010. 10. 11	'러시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언론의 역할 김병호(現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前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81	2010. 10. 18	현대 러시아의 결혼 풍속도 김은희(한국외대 강사)
82	2010. 10. 25	'롤리타'와 '로리콘 문화' 권철근(한국외대 노어과교수)
83	2010. 11. 01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이 소통하는 길, 남북철도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84	2010. 11. 08	러시아 영혼의 쉼터, 바냐 추석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85	2010. 11. 15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86	2010. 11. 22	러시아연방 사법기관 방문기 임태혁(서울고등법원 판사)
87	2010. 11. 29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국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88	2010. 12. 06	러시아 이종권력의 항방: "현대화" versus "주권민주주의"? 유진숙(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9	2010. 12. 13	루쉬코프의 失權과 메드베데프 大權 김선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90	2010. 12. 20	한-러 수교 20주년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미래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특별호	2010. 12. 22	러시아를 외교적 우군으로 만들려면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91	2010. 12. 26	멀고 먼 '스마트 러시아'의 꿈 - 스킴코보 프로젝트 김성휘(머니투데이 국제부 기자)
92	2011. 01. 03	루반카 광장의 돌 하나 김현택(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93	2011. 01. 10	『변방』의 풍경: 자아와 타자의 탈경계 공간 리승도(한국외대 HK 연구교수)
94	2011. 01. 17	WTO 가입에 임박한 러시아 고상두(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95	2011. 01. 24	白石의 북방인식을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를 다시본다 이길주(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96	2011. 01. 31	북카프카스 불안정有感 김선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97	2011. 02. 07	러시아의 공공외교와 한국 내 러시아문화원 개설 엄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98	2011. 02. 14	고대 문헌의 진위논쟁: 『화랑세기』와 『이고리 원정기』 정하경(한국외대 HK 교수)
99	2011. 02. 21	제물포 해전,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조미령(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과장)
특별호	2011. 02. 23	러시아 정계의 숨은 실력자 '소바닌'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00	2011. 02. 28	세계화 속에서 현대러시아 사회계층체계의 변화양상 림마카밀리에브나 탄갈리체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사회학부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101	2011. 03. 07	우리가 사랑한 미국의 러시아인 최용길(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연구원)
102	2011. 03. 14	메드베데프를 바라보며 고르바초프를 생각한다 리승도(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03	2011. 03. 21	러시아 현대 미술: 새로운 도약의 근거 이진숙(미술평론가)
104	2011. 03. 28	3-13 지방선거와 통합 러시아의 불안한 승리: 이종권력체제 분절의 신호탄인가?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05	2011. 04. 04	러시아 현대화 모델 - 새로운 성장 전략 탐색 E. F. 압도쿠신(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106	2011. 04. 11	러시아의 대 리비아 UN 제재 기권, 메드베데프 vs 푸틴의 파워 게임? 조원호(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107	2011. 04. 18	아누코비치와 푸틴의 길 박정호(한국외대 노어과 강사)
<b>특별호</b>	2011. 04. 22	‘BRIC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홍완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러시아연구소 소장)
108	2011. 04. 25	러시아의 특별한 지방 - 극동 마리아 부르두크스카야(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
109	2011. 05. 02	러시아와 들리즈,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사유 최진석(서울대 러시아연구소)
110	2011. 05. 09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연장과 카자흐스탄의 미래 이지은(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111	2011. 05. 16	체부라쉬카(Чебурашка), 러시아 대표 캐릭터 박미령(건국대 연구교수)
112	2011. 05. 23	한-러 에너지분야 협력의 우선 방향 소콜로프 D.A.(멜렌티예프 에너지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13	2011. 05. 30	러시아연방대학교 설립과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은? 김영식(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114	2011. 06. 06	러시아 20세기 ~ 21세기 초 세대 구성과 변화 니콜라이 골로빈(Головин Н.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사회학부 교수)
115	2011. 06. 13	분주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는 APEC 공사 중 배수한(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16	2011. 06. 20	<더 콘서트(Le concert, 2009)> 불협화음이 빚어내는 감동의 하모니 손현익(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117	2011. 06. 27	중앙아시아의 숨겨진 진주 - 우즈베키스탄 한국과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전대완(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118	2011. 07. 04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포트폴리오 재구성 and 블루칩(blue chip) 러시아 이종문(부산외대 러시아-인도 통상학부 교수)
119	2011. 07. 11	제 14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개막식에서 갈라 콘서트까지 박선영(충북대 강사)
120	2011. 07. 18	열린 북극해, 항로와 지하자원 홍성원(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 소장)
121	2011. 07. 25	엘레나 본네르 여사의 타계 한정숙(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122	2011. 08. 01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교체 어떻게 볼 것인가? 2011-2012 선거주기와외 함수관계를 중심으로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23	2011. 08. 08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과 사할린 I, II 광구 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124	2011. 08. 15	서쪽으로 날아간 쌍두독수리 김민수(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125	2011. 08. 22	러시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시인 베로츠키 김선명(러시아교육문화센터 뿌쉬킨하우스 원장)
<b>특별호</b>	2011. 08. 26	베링해협이 해저 철도터널로 연결되면 강덕수(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126	2011. 08. 29	러시아 천년고도의 낙하산 부대 송준서(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b>특별호</b>	2011. 08. 31	‘동상이몽’ 북·러 정상회담이 남긴 것 홍완석(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러시아연구소 소장)
127	2011. 09. 05	러·중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양국간의 同床異夢 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128	2011. 09. 12	제33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후기 홍상우(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129	2011. 09. 19	현대 우크라이나의 상징과 조형물 홍석우(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130	2011. 09. 26	한국과 사하공화국 간 경제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고르 아파나시예비치 보리소프(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대통령)
131	2011. 10. 03	국외 농업개발 해법의 성공적 모델: 우즈베키스탄과의 식물 유전자원 협력 강화 이상덕(행정안전부 우즈베키스탄 장기파견자)
132	2011. 10. 10	2012년 APEC 정상회담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방문기 오영일(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133	2011. 10. 17	푸틴의 복귀로 생각해본 러시아 인텔리전스 현승수(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134	2011. 10. 24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느낀 러시아의 변화상 김병호(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135	2011. 10. 31	러시아 감자 이야기 황성우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Russia & Russian Federation(2010년 3월 창간)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2009년 11월부터 수행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연구결과물을 학계 및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의 딱딱한 학술지 성격에서 탈피하여 현지의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여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대중지를 지향하고 있다. 2010년 3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4회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 말 현재 총 7호가 발간되었다.

권/호수	발행일자	주제	저자
1-1	2010. 03. 01	총장축사	박철 (한국외대 총장)
		발간사	홍완석(러시아 연구소 소장)
		<b>프로젝트 개요</b>	
		2009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b>기획논문: 러시아 연방주체 심화연구</b>	
		러시아 연방구조의 변화와 의미	김성진(덕성여대)
		러시아의 지역간 경제 격차 문제	김상원(국민대)
		러시아연방 83개 연방주체 해부: 9개 변경주를 중심으로	한중만(배재대)

1-1	2010. 03. 01	Россия: Народы и Культуры	Карлов В. В. (모스크바 국립대)
		<b>연구논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b>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지역' 개념에 대한 단상	황성우(한국외대)
		러시아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주권민주주의	김선래(한신대)
		지정학적 '안중국' 개념과 러시아: 이론적 탐색	제성훈(연세대)
		지역성 개념과 러시아 지방연구	송준서(한국외대)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 현황	최우익(국민대)
		디아스포라의 개념 변화와 러시아 내 디아스포라의 형성	김혜진(한국외대)
		신간도서	
		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b>찾이슈 심층 분석</b>	
		러시아 메드베데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 현대화	서동주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러시아 경제에 어떻게 파급되었는가?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최신동향기사	
		[러시아어 Tips(1)] 러시아어 전치사-접두사 при(-)와 за(-)에 대한 고찰 [러시아어 Tips(2)]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продавцами(A) и покупателями(B)	김민수(한국외대)
[법률상식] 극동-시베리아 지역 투자 및 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김영옥 (법무법인 세종)		
[토막상식] 러시아 문화상징 100			
Russia · CIS Focus			
슬라브연구 투고안내문			
1-2	2010. 06. 01	축사	양창수 (외교통상부 유럽국장)
		발간사	홍완석 (러시아연구소 소장)
		<b>찾이슈 심층분석: 스킨헤드, 어떻게 볼 것인가?</b>	
		현대 러시아 스킨헤드에 대한 단상	최아영(한국외대)
		러시아, 스킨헤드 문제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서기원(KOTRA 모스크바 KBC)

1-2	2010. 06. 01	기획논문: 러시아 문화산책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로 향하는 러시아 영화	홍상우(경상대)
		러시아 소수민족 언어 분포	강덕수(한국외대)
		러시아 음식문화의 형성	김근식(중앙대)
		새로운 도약점에 선 Russia contemporary art	이진숙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연구논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II)	
		러시아 민주주의 문화의 원형: 베체와 젤스트보	김선래(한신대)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요인으로서 경계	제성훈(연세대)
		모스크바 공국에서 유라시아 제국으로	송준서(한국외대)
		시베리아 원형성: 러시아인에 투영된 시베리아 공간의 이미지	황성우(한국외대)
		19세기 중반~20세기 초 동양인의 러시아 극동 이주	김혜진(한국외대)
		소비에트 시대 러시아의 인구변천과 지역이주 과정	최우익(국민대)
		러시아 국립 문서보관소, 도서관, 그리고 소련사 연구	조준배(서울대)
		[러시아어Tips(1)] 러시아어 지명 표기에 관한 소고 [러시아어Tips(2)] 입찰 참여에 관한 대화	김민수(한국외대)
		[토막상식] 올렉 공후의 죽음에 대한 예언	김혜진(한국외대)
		[법률상식] 러시아·카자흐스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김영옥 (법무법인 세종)
		신간도서 소개 및 학술대회 안내	
		최신동향기사	
		2010년 9월 학술대회 발표자 공모	
		러시아·CIS Focus 투고 안내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1-3	2010. 09. 01	축사	이윤호 (주 러시아대사)
		발간사	홍완석 (러시아연구소 소장)
		기획논문 1: 러시아 영재교육의 과거와 현재	
		소비에트 말기의 영재교육 정책과 실상	박태성(부산외대)
		변화(Перестройка)의 바람과 함께 피어난 다양화된 러시아의 영재교육	이순주(한밭대)
		러시아의 영재교육	이성민(한국외대)
기획논문 2: 러시아 문화산책			

1-3	2010. 09. 01	러시아 음악	최용길(서울대)		
		동화적 원형의 현대적 변주 러시아 영화와 글래머 현상	라승도		
		연구논문			
		수로체계와 러시아 공간의 확장	황성우		
		러시아의 세계화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비교사적 접근	송준서		
		러시아의 정경유착: 푸틴시기를 중심으로	김선래		
		카스피해(Caspian Sea)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제성훈		
		러시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	최우익		
		러시아의 다민족, 공존의 역사	김혜진		
		러시아의 주요 포럼 현황	이리나		
		[러시아어Tips(1)] 러시아어와 한국어, 그 다름과 닮음	정하경		
		[러시아어Tips(2)] 기억하기 쉬운 러시아어 관용구 모음 [러시아어Tips(3)] 러시아 물류회사원 Павлов(A)와 한국 회사원(B) 간의 상품 배송에 관한 대화	김민수		
		분석기사			
		토막상식			
		신간도서 안내			
		학술대회 안내			
		러시아·CIS Focus 투고 안내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1-4	2010. 12. 01	축사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기획특집	
순록의 툰드라에서 석유채굴지로: 네네츠 자치구의 수도 나르얀-마르 여행기	최우익				
러시아 북부의 문화수도 볼로그다	라승도				
탈경계의 문화공간 카렐리아	정하경				
육지의 외로운 섬인가? 유럽을 향한 교두보인가? 칼리닌그라드	제성훈				
광활한 산림 속 순록과 수달의 땅 코미	김혜진				
특별기고					
2010년 8월: 폭염과 화재의 모스크바	문성기 (Orient-Avto 상무)				
한·러 수교 20년을 회고하며: 러시아, 한국 그리고 북한	마리아 부르두크스카야 (모스크바 국립대)				

		연구논문	
1-4	2010. 12. 01	루쉬코프의 失權과 러시아 大權	김선래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본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현재와 미래	장세호
		세바스토폴의 재건: 도시설계에 나타난 지역주의	송준서
		북극: 분쟁 공간의 확장	이리나 코르군
		[러시아어 Tips(1)] 러시아어 부사 быстро와 скоро, давно долго	김민수
		[러시아어 Tips(2)] Иван Иванович(A)와 Mr.김(B) 간의 보험에 관한 대화	
		숫자로 읽는 러시아	황성우
		[역사상식] 자유롭고 용맹스러운 사람들, 카자크	김혜진
		[가볼만한 곳] 스타라야 루사: 루시의 고향	조은우
		[가볼만한 곳]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즈베니고로드	이선영
러시아 · CIS Focus 투고 안내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2-1	2011. 03. 01	기획특집: 러시아 북서연방관구를 가다	
		러시아 천년고도, 노브고로드를 가다	황성우
		유럽을 향해 손짓하는 천년고도, 프스코프	송준서
		북극해를 향한 창, 무르만스크	김선래
		연구노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연구	
		러시아 정계의 숨은 실력자 '소바닌'	장세호
		칼리닌그라드 지역연구의 이론적 탐색: 고립영토 개념을 중심으로	제성훈
		북극의 변화와 러시아의 진로	최우익
		핀-우그르 민족들, 또 다른 민족공동체의 형성	김혜진
		타자의 얼굴: 러시아 영화의 카프카스 이미지	라승도
		루스키 미르, 그 언어적 관점에 대하여	정하경
		유네스코 지정 러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이리나
		[러시아어 Tips(1)] 사용 빈도수가 높은 러시아어 명사 활용 표현(1)	김민수
		[러시아어 Tips(2)] 컨소시엄에 관한 대화	
		[역사상식] 러시아의 상징, 붉은광장	김혜진
		[가볼만한 곳]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고향, 페레슬라블-잘레스키	조은우
[음식문화탐방] 러시아인을 구한 음식, 키셀	황성우		

2-1	2011. 03. 01	신간안내	
		학술대회 소개	
		학술대회 개최 안내	
		러시아 · CIS Focus 투고 안내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2-2	2011. 06. 01	기획특집	
		러시아의 미래 스크코보, 실리콘밸리를 꿈꾸다	김성휘 (머니투데이 국제부)
		러시아 무슬림 상황과 이슬람 특성	정세진(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노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연구	
		정치적 현대화와 메드베데프의 대권	김선래
		수르코프, 21세기 러시아의 마키아벨리?	장세호
		경계지역의 정체성: 칼리닌그라드 주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제성훈
		탈소비에트 사회변동 20년: 소비에트 사회와 사회변동의 필연성	최우익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지방의 상징과 신화 그리고 '지방 만들기'	송준서
		카자크 공동체, 사회계층인가, 민족그룹인가?	김혜진
		노브고로드 비전 2030	황성우
		『변방』의 풍경과 경계의 해체	라승도
		러시아어와 외국어, 그 접촉의 역사	정하경
		최근 러시아의 대기업: 동향과 추세	Irina Korgun
		에너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꿈꾸며...	김영옥 (법무법인 미르)
		[러시아어 Tips(1)] 사용 빈도수가 높은 러시아어 명사 활용 표현(2)	김민수
		[러시아어 Tips(2)] 클레임에 관한 대화	
		[역사상식] 모노마흐의 모자	김혜진
		[음식문화탐방] 러시아의 국민주, 보드카	황성우
		[가볼만한 곳] 동화 속 궁전이 가득한 푸쉬킨 시(市)	이선영
[가볼만한 곳] 러시아 황금고리의 진주, 수즈달	조은우		
학술대회 안내			
신간안내			
러시아 · CIS Focus 투고 안내			



2-2	2011. 06. 01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2011 대학생 러시아어 서머스쿨	
2-3	2011. 09. 01	<b>기획특집: 1991년 8월 쿠데타 20년: '3일천하'의 의미</b>	
		1991년 8월 쿠데타의 역사적 의미	이홍섭(국방대)
		1991년 8월 쿠데타와 열천시대의 경제 빅뱅(Big Bang)	이종문(부산외대)
		<b>연구노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연구</b>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동아시아와 러시아의 대외정책	제성훈
		러시아의 빈곤문제와 사회갈등	김선래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러시아 기업들: IPO(기업공개) 메커니즘	이리나 코르군
		탈소비에트 사회변동 20년: 시장개혁과 사회변동의 과정 및 단계	최우익
		탈소비에트 20년: 민족정체성의 발현, 그리고 통합과 분리	김혜진
		탈경계 시대 러시아 국경 지역의 변방성	송준서
		인문공간의 모태로서 러시아의 자연환경	황성우
		목가의 해체: 『무슬림』의 농촌 공간	라승도
		<b>러시아 파워엘리트 연구</b>	
		마트비엔코의 상원의장 취임: 날개인가, 족쇄인가?	장세호
		<b>러시아 언어와 문화 강좌</b>	
		러시아어 속담과 경구	정하경
		[러시아어 Tips(1)] 사용 빈도수가 높은 러시아어 명사 활용 표현(3) [러시아어 Tips(2)] 주문에 관한 대화	김민수
		[역사상식] 러시아 최초의 여성 통치자, 올가 여공	김혜진
		[음식문화탐방] 전염병의 소굴에서 제2의 주식으로: 감자이야기	황성우
		[가볼만한 곳]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 세르기예프 파사드	조은우
		[가볼만한 곳] 로마노프 왕조의 고향 '코스트로마'	이선영
		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신간안내	
러시아-CIS Focus 투고 안내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지			
슬라브연구 투고 안내			

08 단행본/총서

1980년을 기점으로 연구소는 기존의 보고서 형태 발간물 대신 단행본 및 총서 출판에 착수했다. 1980년대에는 소련총람 시리즈와 소련연구총서 발간에 중점을 두었으며, 1990-200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의 단행본 발간에 주력했다. 2010년부터는 HK 연구사업의 성과물로서 HK 학술 연구총서와 HK 러시아연방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1  
2

1 1980-1990년대에 출판된 주요 단행본/총서  
2 2000-2010년대에 출판된 주요 단행본/총서

서명	출판일	비고
총람 시리즈 1권 蘇聯總攬 I	1980. 02	
"쁘라브다"의 對韓關聯 記事集	1980. 02	
연구총서 1권 蘇聯의 諸政策 變化에 관한 研究	1980. 03	
연구총서 2권 蘇聯政治過程(I)	1980. 03	
연구총서 3권 蘇聯社會主義 經濟의 變遷過程	1980. 03	

연구총서 4권 蘇聯新聞에 反映된 韓國	1980. 03	
총람 시리즈 2권 蘇聯總攬 II	1981. 03	
연구총서 5권 蘇聯政治過程(II)	1981. 03	
연구총서 6권 蘇聯의 産業	1981. 03	
연구총서 7권 로동신문에 반영된 蘇聯	1981. 03	
총람 시리즈 3권 蘇聯總攬 III	1982. 03	
연구총서 8권 맞시즘과 불세비즘 比較研究	1982. 03	
연구총서 9권 對蘇 接近 摸索을 위한 政策研究	1982. 03	
연구총서 10권 現代 蘇聯의 研究	1984. 07	
연구총서 11권 韓國에 대한 蘇聯의 觀心度 研究	1985. 06	
연구총서 12권 80年代에 있어서 마스크 및 學術雜誌에 나타난 소련의 對韓視角	1986. 06	
1988년도 “쁘라브다” 및 “極東의 諸問題”에 나타난 蘇聯의 對韓半島·아시아 關心度	1989. 06	
소련·동구관련 서적·논문 자료집	1991. 11	
По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2002. 12	
대심문관 연구	2004. 04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고대 교회슬라브어	2005. 05	
러시아 민담 연구	2005. 08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2005. 08	
한국어-러시아어 사전	2006. 06	
우크라이나 언어와 문화	2007. 07	
붉은 광장의 아이스링크	2007. 12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우크라이나: 코사크와 오렌지혁명의 나라	2009. 11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2009. 04	
HK 학술연구총서 1권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이해 I	2010. 02	
HK 학술연구총서 2권 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2010. 06	
이론과 문학	2010. 12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도스토예프스끼와 여성	2011. 01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HK 학술연구총서 3권 야쿠트어	2011. 02	
HK 학술연구총서 4권 2011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2011. 07	
HK 학술연구총서 5권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이해 II	2011. 09	

# 역사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

3부 연구총서 40년 주요 활동자료



지난 40여 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국내외 유수의 연구·교육기관, 정부기관 및 기업체들과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러시아·CIS지역 전문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

국내외 연구·교육기관들과는 공동 학술회의, 콜로키움, 전문가 초청강연회, 해외학자 초청특강 등을 통해 연구 성과와 지역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소속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또한, 정부기관 및 기업체들과는 독보적인 러시아어 교육 노하우, 양질의 러시아어 통번역 인력, 러시아 지역연구 성과 등을 제공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선발·파견하는 등 교류협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1년 10월 말 현재 국내외 24개 연구·교육기관, 15개 일반기관, 총 39개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그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러시아 연구의 허브'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1 연구·교육기관

	기관명	소재지	협정체결일
1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Moscow State Universit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러시아	1991. 10. 11
2	키예프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 대학교 Kyiv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우크라이나	1991. 10. 18
3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러시아	1991. 10. 25 2011. 04. 04 (보완협정)
4	민스크 국립 언어대학교 Minsk State Linguistic University	벨로루시	2000. 11. 14
5	니즈니 노브고로드 언어대학교 Nizhny Novgorod Linguistic University	러시아	2004. 12. 01
6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Irkutsk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5. 01. 21
7	치타 국립 대학교 Chita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5. 05. 16
8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현대 국제문제연구소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Studies of Diplomatic Academy	러시아	2005. 07. 04
9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공과대학교 Novosibi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러시아	2006. 02. 16



- 1
- 2
- 3

1 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와 MOU 체결(2011. 03. 21)  
 2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와 MOU 체결(2011. 02. 07)  
 3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서 체결(2010. 11. 18)

10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대학교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6. 02. 16
11	극동 국립 대학교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러시아	2006. 09. 01
12	야쿠츠크 국립 대학교 Yakutsk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6. 11. 03
13	카잔 국립 대학교 Kaz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8. 09. 05
14	키예프 국립 언어대학교 Kyiv National Linguistic University	우크라이나	2009. 01. 16
15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	러시아	2009. 04. 16
16	벨로루시 국립 대학교 동양어과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Belarusian State University	벨로루시	2009. 04. 21
17	키예프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 대학교 한국어문학센터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iv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우크라이나	2009. 04. 23
18	키예프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 대학교 역사학부 Faculty of History, Kyiv Taras Shevchenko National University	우크라이나	2009. 04. 23
19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한국	2009. 06. 20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2010. 03. 01
2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 Institute of Eastern and Western Societies,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11. 02. 07
22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The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Moscow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11. 03. 21
2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한국	2011. 06. 21
24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한국어문화센터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11. 07. 12

02 일반기관(정부기관, 기업체 등)

	기관명	소재지	협정체결일
1	삼성전자	한국	1994. 12. 09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2002. 10. 07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2005. 03. 15
4	외교통상부	한국	2007. 03. 15
5	국가정보원	한국	2007. 04. 17
6	KOTRA	한국	2007. 06. 22
7	재외동포재단	한국	2007. 12. 26
8	한국경제신문사	한국	2008. 04. 08
9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	한국	2008. 05. 14
10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2008. 10. 28
11	한국문학번역원	한국	2009. 03. 10
12	법무법인 세종	한국	2009. 06. 23
13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	2010. 11. 18
14	법무법인 미르	한국	2011. 04. 27
15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한국	2011. 04. 28



A. 파노프 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외교아카데미 총장의 연구소 방문(2011.11.18)



1  
2

1 법무법인 미르와 업무협약서 체결(2011. 04. 27)  
2 인천국제교류센터와 양해각서 체결(2011. 04. 2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서사회연구소 연구진의 글로벌캠퍼스 방문(2011. 02. 07)